

# 2015년 권역별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양성사업 리서치 결과\_주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서지은] 결과보고

## □ 목 차

No.	구분	내용	page
1	기관 및 단체	Instituto Nacional de Cine y Artes Audio-visuales (INCAA)	159
2		Fundación Cisneros & Colección Patricia Phelps de Cisneros	160
3		Fundación áce	162
4		Fundación Itaú Cultural Argentina	163
5		La Ira de Dios	164
6		Móvil	165
7		Centro de Investigaciones Artísticas (CIA)	166
8	정책 및 소식	키르츠네르 문화센터에서 제3회 MICA (아르헨티나 문화산업마켓) 개최	168
9		라틴아메리카 최초, 북·남미 연합 미술관 관련 제1회 국제 컨퍼런스에 600명이상의 관계자들 모여	170
10		아르헨티나에서 'K-연극'한류 불씨 확산... 한국 극단 하땅세 <파우스트 I+II> 공연에 현지 "increíble" 찬사	171
11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 제 12회 박물관의 밤 행사에 시민들 80만명 이상 참여	173
12		11월 아르헨티나 대선으로 12년 만에 정권 교체 및 새로운 문화부장관 발표	174
13		2017 제1회 남미국가연합 국제 미술 비엔날레를 위한 첫 준비 미팅 열려	175
14		아르헨티나 신임 연방 문화부 장관 취임 및 조직 개편 발표	176
15		전문가 심사 방식으로 선출된 아르헨티나 국립미술관 새 관장 Andrés Duprat	177
16		아르헨티나 국립예술기금 새 대표에 Carolina Bisquard 임명	178
17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에서 100여개의 여름맞이 무료 문화행사 진행	179
18		파에나 아트센터, 7만 5천불 상금걸린 아티스트 오픈콜 진행	180
19		아르헨티나 국립예술기금 창작지원기금액 대폭 증액 발표	181
20		제18회 부에노스 아이레스 국제독립영화제(BAFICI) 개최	182
21		제42회 부에노스 아이레스 국제도서전 개최	183

22	공간	Coleccion de Arte Amalia Lacroze de Fortabat	185
23		FoLa - Fototeca Latinoamericana	186
24		Museo de Arte Moderno de Buenos Aires (MAMBA)	187
25		Centro de Arte Experimental UNSAM	188
26		Casa Nacional del bicentenario	189
27		PRISMA KH	189
28		Galpão VB	190
29		MUNTREF CENTRO DE ARTE CONTEMPORÁNEO - SEDE HOTEL DE INMIGRANTES	192
30		URRA	193
31		[브라질] Paço das Artes	194
32		축제 및 행사	Gallery Night
33	Festival Internacional Video Danza BA		197
34	Contemporary Art Festival Sesc_Videobrasil		198
35	Bienal de la Imagen en Movimiento (BIM)		199
36	메르코수르 비엔날레 (Bienal do Mercosul)		200
37	Bienal de Performance (BP)		201
38	BAWEBFEST		202
39	PARTE		203
40	[페루] Perú Arte Contemporáneo (PArC)		204
41	인물	Agustín Pérez Rubio	205
42		Alicia de Arteaga	205
43		Elda Harrington	206
44		Teresa Riccardi	207
45		Alejandro Cacetta	208
46		Laeticia Mello	208
47		Andrés Duprat	209
48		Gaudêncio Fidelis	209
49		변겨레 (Antonio Kyore Byun)	210
50	기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미술관 지형도를 통해 본 아르헨티나 현대미술”	211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Instituto Nacional de Cine y Artes Audio-visuales (INCAA)		
유형	국립기관	장르	영화/영상
			
주소: Lima 319, Buenos Aires, Argentina 전화: +54 11 4379-0900 이메일: <a href="mailto:administracionincaa@incaa.gov.ar">administracionincaa@incaa.gov.ar</a> (일반) <a href="mailto:presidencia@incaa.gov.ar">presidencia@incaa.gov.ar</a> (디렉터) 홈페이지: <a href="http://ant.incaa.gov.ar/">http://ant.incaa.gov.ar/</a>			

국립영화영상예술위원회(Instituto Nacional de Cine y Artes Audio-visuales, 이하 INCAA)는 아르헨티나 영화의 진흥을 위해 제정된 정부령 제 17741호에 의해 연방 문화부(Ministerio de Cultura) 산하 영화부문 전담기관으로서 1987년 설립되었으며, 운영 및 행정 관련 상당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INCAA의 주된 기능은 아르헨티나 전역에 걸친 영화산업의 규제와 진흥이며, 해외로 진출하는 자국 영화의 경우, 그 역할은 국외로까지 확대된다.

INCAA의 기능 중 가장 핵심은 아르헨티나 영화산업의 진흥을 돕는 영화발전기금의 운용이라 할 수 있다. 기금지원은 직접 보조금과 특별대출을 통해 프로젝트와 성격에 따라 시행된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영화산업과 영상예술의 문화.예술.기술.산업적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데뷔작, 완성작, 단편영화 등에 대한 다양한 공모전과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아르헨티나 영화의 국제적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자국영화의 국제영화제 출품을 장려하고, 국제영화제에 출품되는 영화를 지원하는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 INCAA의 운영조직

INCAA의 내부 조직은 위원장(2015년 현재, 위원장: 루크레시아 카르도소(Lucrecia Cardoso))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에 의해 위촉된다. 위원장이 부재 중 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INCAA 위원장은 각 주정부와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 자치정부 산하 문화부 장.차관급 인사로 구성된 연방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그 외,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이를 구성하는 11인의 위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아르헨티나와 영화산업: 아르헨티나는 영화와 같은 문화적 표현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리로 인정한다. 이런 이유로 문화란 정보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참여해야 하는 부문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향상을 위한 불변의 책무를 약속하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정부는 해당 분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고,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국내 영화산업의 부흥과 수백만의 국민들이 무상으로 자국영화를 접하게 된 것이 바로 그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 태그: #INCAA #국립영화영상예술위원회 #영화 #영상 #아르헨티나영화산업 #영화발전기금

기관/단체명	Fundación Cisneros & Colección Patricia Phelps de Cisneros		
유형	사립 예술재단	장르	중남미 시각예술



[New York Office]  
 주소: 2 East 78 Street, New York, NY 10075  
 전화: + 1 (212) 717.6080

[Caracas Office]  
 주소: Quinta Patricia, Final Av. La Salle  
 Colinas de los Caobos, 1050, Caracas, Venezuela  
 전화: + 58 (212) 708.9767  
 이메일: [info@coleccioncisneros.org](mailto:info@coleccioncisneros.org)  
 홈페이지: [www.coleccioncisneros.org](http://www.coleccioncisneros.org)

패트리샤 펠프스 데 시스네로스 컬렉션(The Colección Patricia Phelps de Cisneros (CPPC))과 그 재단(Fundacion Cisneros)은 베네수엘라 출신의 유명한 컬렉터이자 자선가 Patricia Phelps de Cisneros and Gustavo A. Cisneros부부에 의해 1970년에 설립되었다. Cisneros부부는 뉴욕타임즈가 뽑은 라틴아메리카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현재 재단의 핵심 이니셔티브인 CPPC는 뉴욕 맨해튼과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Caracas)에 두 지역에 메인 본부를 두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가 시각예술영역에 미친 영향들의 재인식, 라틴아메리카 예술에 대한 이해 증진, 지속가능한 국제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45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출신 작가 및 큐레이터, 학자들을 위한 기금을 수여하고, 라틴아메리카 미술 관련 서적의 출판을 지원하며, 세계 유명 미술관의 라틴아메리카 미술의 전시 기회 확보하는데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유럽중심으로 편중된 근현대 미술의 흐름에서 라틴아메리카의 근현대미술의 존재를 재조명하고 미술사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권위 있는 기관들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CPPC의 활동 중 괄목할만한 것은 세계 근현대미술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현대미술관 MoMA(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에 행사하는 막강한 영향력이라 할 수 있다. Patricia Phelps de Cisneros는 MoMA의 이사회의 파운딩 멤버이자,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언 펀드(Latin American and Caribbean Fund)의 의장을 맡고 있다. MoMA의 라틴아메리카 미술 컬렉션의 확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를 통한 다양한 라틴 아메리카 미술 관련 소장품 및 기획전시들이 선보여지고 있다.

또한, Cisneros는 보스턴 하버드 대학 미술관의 자문위원회, 런던에 있는 테이트 모던(Tate Modern) 미술관의 라틴아메리카 미술품 구입을 위한 국제위원회의 활발한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그 외에도 스페인 마드리드의 International Trustee of the Fundación Amigos del Museo del Prado와, 파리龐피두센터의 the Association Centre Pompidou América Latina, 그리고 the Museum Berggruen's International Council과 the American Friends of the Fondation Beyeler등의 멤버로 속해 있다.

CPPC의 에디토리얼 팀은 웹사이트(ColeccionCineros.org)를 통하여 라틴아메리카 미술과 관련된 최근 소식 등과 함께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페이스 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SNS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COLECCIÓN CISNEROS

ART and IDEAS from LATIN AMERICA

※ CPPC 운영조직의 핵심인물

디렉터 겸 수석큐레이터: Gabriel Pérez-Barreiro

큐레이터 (현대미술분야): Sofía Hernández Chong Cuy

※ CPPC의 주요 프로그램

■ Seminario Fundación Cisneros

근현대미술과 문화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위한 이니셔티브로, 심포지엄 형식과 Pecha Kucha 모델을 결합한 다이나믹한 이벤트를 통해 아티스트, 큐레이터, 비평가, 프로듀서 등을 초청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장이다.

■ Viewing Room

CPPC의 최근 소장하게 된 현대미술품들을 한 작품씩 주목하여, 전시를 하고, 연계된 세미나나 렉처 등을 열어 흔히 볼 수 없는 작품들을 대중과 학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 Discusiones

학생과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렉처시리즈로, 시각예술, 건축, 음악, 문학, 디자인, 영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장이다. 베네수엘라에 있는 대학이나 문화기관 등과 파트너십을 맺기도 한다.

Travel Award: 2012년부터는 ICI (Independent Curators International)과 협력하여 큐레이터들의 라틴아메리카 지역 연구를 돕고자, 매년 Travel Award를 수여하고 있다.

※ CPPC의 큐레이터, 미술관 관계자 및 학자들을 위한 Grants 프로그램



Cisneros/CIMAM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활동하는 큐레이터와 미술관 전문가들이 Museums and Collections of Modern Art(CIMAM)을 위한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ICOM)의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CPPC-ICI Travel Award for Central America and the Caribbean

2012년부터 매년 후보자를 뽑고 있으며, 뉴욕의 Independent Curators International (ICI)와 협력하여 중앙아메리카 및 캐리비언 지역에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큐레이터들의 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DOCUMENTA (13)

DOCUMENTA (13) Curatorial Fellowship

2012년에 열린 국제미술행사인 카셀 도큐멘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큐레이터를 선발해 큐레토리얼 펠로우십을 제공

※ 태그: #Fundacion Cisneros #CPPC #라틴아메리카미술 #근현대미술 #컬렉션 #MoMA #Collection #Cisneros #grants

기관/단체명	Fundación 'ace		
유형	비영리 문화단체	장르	시각예술



주 소: Conesa 667, C1426AQM, Buenos Aires  
 전 화: + 54 (11) 4551 3218  
 이메일: info@proyectoace.org  
 홈페이지: [www.proyectoace.com](http://www.proyectoace.com)




'ACE 재단은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위치해 있으며, 미술작가들의 창작 역량 강화와 창작 여건 활성화, 아르헨티나 국내 미술계와 국제 미술계의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적인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이다. 2000년에 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가 Alicia CANDIANI 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2004년에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에 가정집이었던 곳을 개조하여 독립적인 레지던시 겸 아트센터로 활용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대내외적으로 프로젝트 아씨(PROYECTO 'ACE)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으로는 레지던시, 전시, 국제 프로젝트, 워크숍 등이 있다.

재단의 프로그램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국제 시각예술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Ace international Artistic Residence)'이다. 여러 기업과 단체의 후원을 받아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판화, 사진, 디자인, 뉴미디어와 연관된 현대미술분야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리서치와 레지던스 참가를 통해 생산해 낸 결과물을 통해 교류 증진을 지원한다. 레지던스 참여 작가들의 선발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오픈콜을 통해 진행된다. 오픈콜을 통해 선발된 참여 작가들에게는 스튜디오와 숙박, 지원금을 제공하며, 프로젝트를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시설장비와 작업방향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30세 미만 신진작가를 위한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다.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의 국제교류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

※ 태그: #Fundacion 'ACE #부에노스아이레스 #레지던스 #시각예술 #국제교류 #프로젝토아씨 #PROYECTO ACE #Alicia Candiani



기관/단체명	Fundación Itaú Cultural Argentina		
유형	-	장르	시각예술
	<p>주 소: Viamonte 1010, 1010 CABA, Argentina            전 화: (+54) 11 4378-8462            이메일: info@fundacionitau.org.ar            홈페이지: http://www.fundacionitau.org.ar</p>		
<p>아르헨티나 이타우 문화재단(Fundación Itaú Cultural Argentina)는 브라질계 국제은행 이타우(Itaú)가 2009년에 아르헨티나에 설립한 이래, '문화예술'을 사회변화의 중요한 틀로 보고, 필름메이커, 뮤지션, 미술가, 작가 등 젊은 예술가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회 소외계층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 내 전시공간 운영을 통해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기회를 제공한다.</p> <p>문화예술 지원활동으로는 컴피티션, 전시, 영화제, 콘서트 등을 선보이고 있는데, 그 중 주목할 만한 연례행사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p> <p><b>※ Itaú Cultural Visual Arts Award:</b>            아르헨티나 내 시각예술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어워드 자리매김하였다. 오픈콜 방식을 통해 작품을 모집하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작품을 선발하여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의 기간에 전시를 통해 선보이는 방식이다. 또한, 선발된 작품들은 매년 발행되는 카탈로그에도 소개된다.</p> <p><b>※ Itaú Cultural Digital Story Prize:</b>            아르헨티나에서 처음 행해지는 방식의 이 제도는 매년 5월과 6월 아르헨티나 전역으로부터 디지털 작품의 접수를 받고, 이것을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한다.</p> <p>또한, 이타우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교육을 통한 사회공헌활동(Itaú social)은 다음과 같은 세 카테고리 분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Knowledge Management</li> <li>2. Social Development</li> <li>3. Volunteering</li> </ol>			



※ 태그: Itaú, Fundación, Itaú Cultural, Itaú social, visual arts, 이타우, 문화재단, 아르헨티나, 문화 예술지원, 사회공헌, 어워드, 디지털, 시각예술

기관/단체명	La Ira de Dios		
유형	비영리 문화기관	장르	시각예술
<p>주 소: Aguirre 1029, Ciudad de Buenos Aires            전 화: +54 - 11- 4857 - 9297            이메일: info@lairadedios.com.ar            홈페이지: http://lairadedios.com.ar/</p>			
<p>문화경영과 공공정책에 연결되어 있는 작가들과 관계자들이 마음을 모아, 시각예술을 통해 중요한 사회 기여가 가능하다는 믿음 아래 설립된 비영리 시각예술 플랫폼이다.</p> <p>젊은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리서치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작의 아이디어들을 구현해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p> <p>트레이닝과 소통, 생산의 장이 되고자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뉴미디어, 사진,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을 초대하여, 레지던시 기간 동안 개인 작업과 더불어 다양한 그룹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국제적 아티스트들과의 교류가 가능케 한다. 무엇보다도 현대 미술계에서 대두되는 담론을 넘어서, 새로운 관점을 이끌어 내고, 그것을 통해 참여 작가들이 창작에 있어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p>국제 레지던시는 단기로 운영되며 4주 간 강도 높게 진행되는데, 2015년의 경우, 7월에서 9월 사이 진행되었다.</p>			
<p>※ 태그: 시각예술, 레지던시, 창작공간, 비영리, 국제교류</p>			






기관/단체명	Móvil		
유형	비영리 문화기관	장르	시각/복합예술
<p>주 소: Iguazú 451, C1437ETE, Buenos Aires, Argentina</p> <p>전 화:</p> <p>이메일: movil@movil.org.ar</p> <p>홈페이지: <a href="http://www.movil.org.ar/">http://www.movil.org.ar/</a></p>			
<p>Móvil은 런던의 테이트 모던에서 경험을 쌓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근현대미술관(MAMBA)에서 일해온 큐레이터, 알레한드라 야구아도 (Alejandra Aguado)와 Ruth Benzacar 갤러리에서 8년간 일했던 비아몬테 소라나 몰리나(Viamonte Solana Molina)가 합심하여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4월에 설립,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독립 문화예술기관이다. 상업성을 배제하고, 실험성에 기반을 둔 현대미술의 프로덕션과 전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p> <p>Móvil의 주요 목표는 젊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 또한 Móvil이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대중들이 현대 예술에 보다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기관의 성격에 맞는 아티스트들의 개인전부터 일반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p>			

현재 Móvil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 테크놀로지 디스트릭트(Distrito Tecnológico)로 지정되어 있는 파트리시오스 공원(Parque Patricios) 주변지역에 자리잡은 CheLA (Centro Latinoamericano Hipermediático Experimental) 센터의 Tatraba룸에 위치하고 있다.



※ 태그: Móvil, 비영리, 전시, CheLA, 테크놀로지 디스트릭트, 부에노스 아이레스

기관/단체명	Centro de Investigaciones Artísticas (CIA)		
유형	비영리기관	장르	시각/복합예술
	주 소: Bartolomé Mitre 1970 piso 5 B, Buenos Aires, Argentina		
	전 화: +54 11 4861 7838		
	이메일: info@ciacentro.org.ar		
	홈페이지: <a href="http://www.ciacentro.org.ar/">http://www.ciacentro.org.ar/</a>		
<p>Centro de Investigaciones Artísticas(CIA, 예술연구센터)는 Fundación Sociedad, Tecnología y Arte (START)의 지원을 받아 Judi Werthein, Gachi Hasper, Roberto Jacoby 3인이 협력하여 2009년 설립한 비영리 기관으로,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에 위치한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운영하는 주체이다.</p>			

2006년 Residencia Internacional Artistas en Argentina (RIAA)(\*참고1)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간운영의 기본적 틀과 방향을 설계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시작되었다.

CIA는 해마다 선정위원회에 의해 선발된 아르헨티나 및 인터네셔널 아티스트, 큐레이터, 학자들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선발된 아티스트들에게는 CIA 문화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

**\* 참고 1: Residencia Internacional Artistas en Argentina (RIAA)**

2주 동안 전세계 20여 명의 아티스트들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모여 레지던시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레지던시 기간동안 프리젠테이션 데이, 디스커션, 크리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 리서치 결과, 2010년까지 진행된 이후, 중단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CIA 조직 운영**

Director of CIA: Roberto Jacoby

President of Fundación START: Sebastián Gordín

Secretary of Fundación START: Ana Longoni

Treasurer of Fundación START/ Creative planning of CIA: Kiwi Sainz

General Coordination of Fundación START / CIA: Celestial Brizuela

Communication of Fundación START / CIA: Florencia Hipolitti

\* 태그: 비영리, Centro de Investigaciones Artísticas, Fundación START

[정책 및 소식]

정책 및 소식	키르츠네르 문화센터에서 제 3회 MICA (아르헨티나 문화산업마켓) 개최
관련링크	<a href="http://www.diarionorte.com/article/127885/el-chaco-tiene-sus-representantes-en-el-mica-2015">http://www.diarionorte.com/article/127885/el-chaco-tiene-sus-representantes-en-el-mica-2015</a>



아르헨티나 문화산업마켓(Mercado de Industrias Culturales Argentinas, 이하 MICA)은 2011년 첫 개최 이후, 자국의 다양한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는 아트마켓이다. 아르헨티나 연방문화부의 주최로 열리는 이 행사는 아르헨티나 내 24개 주의 각 문화산업의 고른 발전과 다양한 문화창작활동의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2011년, 2013년에 이어 올해 3회를 맞이한 본 행사는 지난 5월 새롭게 개관한 키르츠네르 문화센터(Centro Cultural Kirchner; CCK)에서 9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공연예술, 시청각 프로덕션, 출판, 디자인, 게임 분야에 종사하는 관리자급 인사부터 프로듀서, 아티스트, 사업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연방 문화부 장관인 Teresa Parodi는 9월 3일 열린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여 아르헨티나 내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연방 정부도 계속 힘쓸 것임을 밝혔다. 그에 앞서 문화산업 총감독인 Natalia Calcagno는 문화산업이 지니는 수익성을 강조하며, 이 행사의 중요성과 함께 문화다양성이 문화산업에 미칠 영향력을 주목하였다. 이날 열린 개막식 행사에는 Teresa Parodi 와 Natalia Calcagno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정치, 문화,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하였고, 다양한 종류의 공연이 펼쳐져 행사의 화려한 출발을 알렸다.

4일 동안 장르별로 펼쳐진 워크숍, 공연, 쇼케이스, 컨퍼런스, 비즈니스 미팅 등에는 4000여명 이상의 문화산업 종사자 및 일반인들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르헨티나의 문화산업은 총 GDP의 3%를 차지하며, 연간 100억 페소를 벌어들이고 있다.

※ 2015 MICA 카탈로그 다운로드:

<http://mica.cultura.gob.ar/wp-content/uploads/2015/09/CatalogoMICA2015web1.pdf>

※ MICA

전화: +54 (011) 3754-0376 / 0371

주소: A. Alsina 465 7°piso, C1087AAE,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Argentina

이메일: [mica@cultura.gov.ar](mailto:mica@cultura.gov.ar)

홈페이지: [www.mica.gob.ar](http://www.mica.gob.ar)

## ARGENTINE CULTURAL INDUSTRIES MARKET

MICA (standing for "Argentine Cultural Industries Market") is the main marketplace for cultural industries in Argentina. It brings the sectors of performing arts, audiovisual production, design, publishing, music and video games together under one roof.



**PERFORMING  
ARTS**



**AUDIOVISUAL**



**DESIGN**



**PUBLISHING**



**MUSIC**



**VIDEOGAMES**

Producers, managers, entrepreneurs and cultural businessmen, find in MICA a unique venue where they may display their original and high-quality creations, with a strong representation of all the regional identity.

All ventures, large, small or medium, may participate in MICA, as buyers or sellers in business rounds, in training, in workshops, in the Producers Fair or in 5-minute projects pitching.

## MICA'S PROPOSAL

MICA is an open window to Argentina's cultural diversity, to those artistic and cultural expression that usually have no place in mainstream market.

MICA will be open to the general public for four days. During that time, participants and visitors may enjoy this public policy, made by a committed State fostering inclusion, equity, development, diversity and sovereignty



Setting new business deals



Enjoying cultural diversity of  
Argentina



Creating new contacts and  
networking



Discussing culture and its  
industrial character



Experiencing new trends



Learning about the view of  
cultural industry international  
benchmarks

※ 태그: #MICA #아트마켓 #아르헨티나 #연방문화부 #컨퍼런스 #개막식 #CCK #키르츠네르문화센터 #아르헨티나문화산업 #Teresa Perodi

## ARGENTINE CULTURAL INDUSTRY IN NUMBERS

**3**  
% of national GDP

**100000000000**  
pesos in production per  
year

**500000**  
job positions

정책 및 소식

라틴아메리카 최초, 북·남미 연합 미술관 관련  
제 1회 국제 컨퍼런스에 600명 이상의 관계자들 모여

관련링크

<http://elmuseoreimaginado.com/en/>



지난 9월 2일(수)부터 4일(금)까지 3일간 북남미 지역의 미술관·박물관 관계자 600명 이상이 참석한 국제 컨퍼런스 <REIMAGINING THE MUSEUM - Conference of the Americas>가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 La Boca지역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인 Usina del Arte에서 개최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술관 관련 조직으로 알려진 미국박물관연합 (AAM - American Alliance of Museums)와 아르헨티나의 Fundacion TyPA (Teoría y Práctica de las Artes) 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개최된 행사이다. 각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오늘날의 뮤지엄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주최 측의 예상 참가인원인 400명을 훌쩍 뛰어넘어, 실제 행사에는 총 24개국, 220군데가 넘는 문화기관의 관계자 6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최종 집계, 첫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스피커로는 미국, 호주, 영국, 멕시코,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 각지에서 미술관 관장,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마케팅 담당자 및 정부 문화정책 담당자들이 초대되었고, 컨퍼런스 기간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자의 전문 영역과 관련한 생각들을 참가자들과 함께 나누었다.

3일간 총 50세션이 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4 KEYNOTE PRESENTATIONS featuring international experts in museums and culture
- . 9 PANEL DISCUSSIONS 북남미 50여명 이상의 전문가가 스피커로 참여

- . 3 INTIMATE CONVERSATIONS with 3 of the speakers
- . 2 sessions comprised of BRIEF PRESENTATIONS of 16 CASE STUDIES
- . 1 SESSION USING A TRIAL FORMAT where a controversial museum topic was judged
- . 1 UNCONFERENCE
- . 1 COMPETITION among 5 outstanding projects with a prize
- . 9 intensive, small SMALL GROUP WORKSHOPS on timely and practical museum topics
- . 1 WORKSHOP “Manifesto for Museums of the Americas”
- . 1 PROFESSIONAL EXPO with 11 stands from 5 countries
- . 18 THEMED CONVERSATIONS
- . 5 VISITS AND ACTIVITIES at prominent Buenos Aires museums
- . 1 POP-UP MUSEUM focused on the role of imagination in museums
- . 1 CLOSING PARTY with music and dancing



**American Alliance of Museums**

※ 미국박물관연합 American Alliance of Museums

AAM(前,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은 1906년 출범하여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세계 박물관 연합회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비영리 조직체이다. 현재 25,000여 명의 뮤지엄 관계자와 4,000여 박물관, 150여 기업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0년 출범 이후 박물관의 표준을 높이도록 지식을 공유하고, 경력개발 프로그램과 자원을 제공하여 박물관 번영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50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정기총회(Annual Meeting)와 박물관박람회(Museum Expo)를 개최한다. (홈페이지: [www.aam-us.org](http://www.aam-us.org) )



※ FUNDACION TyPA (Teoria y Practica de las Artes)

TyPA 재단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그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단체로 문학, 박물관, 영화, 예술 분야의 증진과 교육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워크숍,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고, 아르헨티나 및 라틴아메리카 내의 문화생산을 지원하는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tyapa.org.ar/> )

정책 및 소식	<b>아르헨티나에서 ‘K-연극’한류 불씨 확산... 한국 극단 하땅세 &lt;파우스트 I+II&gt; 공연에 현지 “increíble” 찬사</b>
관련링크	<a href="http://www.lanacion.com.ar/1834563-un-fausto-con-agua-y-fuego">http://www.lanacion.com.ar/1834563-un-fausto-con-agua-y-fuego</a> <a href="http://ar.blastingnews.com/ocio-cultura/2015/10/la-compania-surcoreana-haddangse-theatre-presento-fausto-i-ii-00599663.html">http://ar.blastingnews.com/ocio-cultura/2015/10/la-compania-surcoreana-haddangse-theatre-presento-fausto-i-ii-00599663.html</a>
<p>10월, 한국 극단 하땅세가 고전 ‘파우스트’를 재해석한 작품 &lt;파우스트 I+II&gt;를 아르헨티나 투어공연을 통해 선보이며, 현지 관중과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코르도바에서 1회 공연과, 연이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의 2회 공연을 통해 한국 연극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계층의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p>	

극단 하땅세는 아르헨티나 내 코르도바 지역에서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 10회 메르코수르 국제연극제(Festival Internacional de Teatro Mercosur)'에 공식 초청되어 현지에서 오게 되었다. '메르코수르 국제연극제'는 라틴아메리카 유명 공연예술페스티벌 중 하나로,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년도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총 11개국이 참여하였으며, 한국 극단 하땅세는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초청을 받아, 지역 관객 및 관계자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독차지하였다. 메르코수르 국제연극제의 라울 산시카 총감독은 "코르도바 관객들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한국 출신의 극단이 참여했다는 것에 흥분과 기대를 감추지 못했다"고 밝히며, "전설과도 같은 서양의 문학 작품을 한국 극단이 강렬한 색감과 생동감 있는 움직임으로 통해 아름답게 재창조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코르도바 공연 이후 10월 8일과 9일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에 위치한 산 마르틴 국립대학(UNSAM)의 실험예술센터에서 공연을 가졌는데, 전석 매진 행렬을 기록하였다.

코르도바 지역 방송 매체 '엘도세(EI doce)'는 '한국 극단이 해석한 파우스트' 제하 이종률 문화원장 및 축제 예술감독과의 리뷰를 일찌감치 보도하는 등 아르헨티나 주요 언론도 대서특필이었다. 아르헨티나 중남미한국문화원은 온라인 매체까지 포함하여 일주일 동안 60회 이상 언론에 노출되는 기록을 세운 것으로 집계하였다.



'블라스팅뉴스(Blastingnews)'는 '한국 극단이 풀어낸 독일 고전 문학' 제하 기사에서 "현대적이고 선구자적인 실험극으로 아름다운 시각적 연출은 관객들을 무아지경으로 끌고 간다며, "특히 한국 배우들의 출중한 연기력에는 국경과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극찬했다.

일간지 '암비토 피난시예로(Ambito Financiero)'는 '한국 극단 하땅세, 한국의 시선으로 해석한 파우스트'



라는 기사에서 극단 하땅세의 연극관 및 작품에 반영된 한국적인 문화 요소를 집중 보도했다.

또한 일간 '엘 티empo 아르헨티노(El Tiempo Argentino)'는 '움직임 속의 언어' 제하 기사를 통해 "현지 사정으로 무대 장비를 최소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디테일에 강한 한국 연극의 장점을 통해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며 "한국의 대학로라는 지역에는 200개 이상의 상설 극장이 있으며, 대부분의 연극은 사회 정치적인 메시지를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상세히 소개했다.

윤시중 연출가는 "첫 남미 방문에 <파우스트 I+II>의 해외 공연도 처음이라 다른 때보다 더욱 설레는 마음이 컸다. 한편으로는 언어적 한계 때문에 공연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을것으로 우려했는데 관객들이 우리 극단이 텍스트보다 이미지에 큰 비중을 두고 해석한 <파우스트 I+II>를 완전히 몰입하며 관람한 것 같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정책 및 소식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 제 12회 박물관의 밤 행사에 시민들 80만명 이상 참여
관련링크	<a href="http://www.diarioz.com.ar/#/nota/masiva-concurrencia-en-la-12o-noche-de-los-museos-47047/">http://www.diarioz.com.ar/#/nota/masiva-concurrencia-en-la-12o-noche-de-los-museos-47047/</a>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정부 문화부에서 주최하는 연례행사로 2004년부터 실시되어 올해 12회를 맞이하는 '박물관의 밤(La Noche de Los Museos)'에 8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무료 전시 및 공연 등 500개가 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1997년에 베를린에서 시작된 이 행사는 평소 문화생활을 자주 즐길 수 없는 사무직 종사자들을 위해 아주 늦은 시간까지 박물관 및 문화공간을 오픈한다는 개념으로 도입되어, 현재 유럽전역과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120여개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번 '박물관의 밤'행사는 10월 31일(토)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진행되었으며,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 220여 개의 박물관과 미술관, 다양한 문화 공간들이 참여하였으며, 시정부 후원으로 이날 제공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었다. 또한, 행사 기간 내에는 행사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버스 승차권을 프린트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박물관을 운영하는 90개 노선의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부에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박물관의 밤> 행사에 참여한 한국문화원은 ▲K-팝 디스코텍 ▲빛 초롱 소원 등불 ▲한국 애니메이션 <미투리> 상영 ▲전통 거울 만들기 ▲한글 이름 쓰기 ▲<한글 - 움직이는 형상들> 전시회 ▲한국, 우리의 이야기(Korea, our stories) ▲한국관광 홍보 영상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약 2500명의 현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한국 문화의 밤을 선사하였다.



정책 및 소식	<b>11월 아르헨티나 대선으로 12년 만에 정권 교체 및 새로운 문화부장관 발표</b>
관련링크	<a href="http://www.lanacion.com.ar/1848793-pablo-avelluto-ministro-de-cultura">http://www.lanacion.com.ar/1848793-pablo-avelluto-ministro-de-cultura</a> <a href="http://www.cronista.com/economiapolitica/Quien-es-Pablo-Avelluto-el-ministro-de-Cultura-de-Macri-20151125-0093.html">http://www.cronista.com/economiapolitica/Quien-es-Pablo-Avelluto-el-ministro-de-Cultura-de-Macri-20151125-0093.html</a>

지난 11월 22일(현지시간) 치뤄진 아르헨티나 대선결선투표에서 중도 우파의 야당 후보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가 당선되어 12년 만에 좌파 정부에서 우파 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 졌다.

대선 직후, 현재의 아르헨티나 연방정부 문화부 장관인 테레사 빠로디(Teresa Parodi)를 이을 새로운 장관이 발표됐다. 현,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정부의 공공미디어 시스템의 코디네이터이자, 저널리스트,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는 빠블로 아베슈또 (Pablo AVELLUTO, 50세)가 그 주인공이다. 새로운 문화장관이 발표되자, 현지 언론들은 “빠블로 아베슈또, 그는 누구인가? (Quién es Pablo Avelluto, el ministro de Cultura de Macri)”와 같은 제목으로 다양한 기사들을 내보내며 관심을 표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문화부를 이끌 장관으로 임명된 아베슈또는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태생으로, 오랜 기간 출판 업계에 몸담아 온 인물이며, 재즈음악의 열성팬으로 알려져 있다.

## Quién es Pablo Avelluto, el ministro de Cultura de Macri

El periodista y editor llega a esa cartera para “construir sobre lo ya realizado”.

Pablo Avelluto , Cultura , Macri , gabinete

Fotos



Quién es Pablo Avelluto, el ministro de Cultura de Macri

※ 태그: #아르헨티나대선 #정권교체 #마크리 #Mauricio Macri #문화부장관 #Pablo Avelluto

정책 및 소식	2017 제 1회 남미국가연합 국제 미술 비엔날레를 위한 첫 준비 미팅 열려
관련링크	<a href="http://www.cultura.gob.ar/noticias/jozami-la-bienal-de-arte-de-la-unasur-es-una-politica-de-estado/">http://www.cultura.gob.ar/noticias/jozami-la-bienal-de-arte-de-la-unasur-es-una-politica-de-estado/</a> <a href="http://www.cultura.gob.ar/noticias/notas-para-pensar-una-bienal-que-reivindique-el-arte-latinoamericano/">http://www.cultura.gob.ar/noticias/notas-para-pensar-una-bienal-que-reivindique-el-arte-latinoamericano/</a>



남미국가연합 국제 미술 비엔날레 (Bienal Internacional de Arte UNASUR) 전시 준비를 위한 첫 미팅이 지난 11월 20일 ‘Sur Global - UNASUR 비엔날레를 향하여’ 제하 개최되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된 이 행사에는 칠레, 파라과이, 브라질, 독일, 프랑스 등에서 온 시각예술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주제로 섹션별 대화 및 세미나를 가졌다.

아르헨티나 문화부 장관 테레사 빠로디(Teresa Parodi)와 9월 4일 남미국가연합 문화부 미팅에서



Ministerio de Cultura

BIENAL INTERNACIONAL DE ARTE UNASUR.

Argentina Bolivia Brasil Chile Colombia Ecuador Guyana Paraguay Perú Surinam Uruguay Venezuela

비엔날레 총 디렉터로 임명된 아니발 호자미(Anibal Jozami)가 비엔날레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하면서 미팅은 시작되었다.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새롭게 개최될 '남미국가연합 국제 미술 비엔날레'는 기존의 비엔날레가 취했던 형식인 1인 기획자 총감독 체재를 지양하며, 대신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추천되거나 혹은 선발된 큐레이터들이 함께 공동 기획하는 구도로 진행될 것임을 표명했다.

또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비엔날레 준비를 위한 미팅은 12월 중순, 그리고 2016년 2월 25일 마드리드에서, 4월 6일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연속해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 내의 미술전문가 및 아티스트들 뿐만 아니라, 미국 워싱턴 허쉬혼 미술관(Hirshhorn Museum)의 책임 큐레이터인 Stéphane Aquin, 프랑스 철학자이자 사회학자 Gilles Lipovetsky 등이 참여하여 비엔날레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미국가연합(UNASUR)과 아르헨티나 외교부, 연방 문화부가 협력하여 신설한 이 비엔날레는 2017년 키르치네르 문화센터(CCK; Centro Cultural Kirchner)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참여 국가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공화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이다.

※ 태그: # Biental Internacional de Arte UNASUR #남미국가연합 #UNASUR # 시각예술 #비엔날레 #CCK #키르치네르 문화센터

정책 및 소식	아르헨티나 신임 연방 문화부 장관 취임 및 조직 개편 발표
관련링크	<a href="http://prensa.argentina.ar/2015/12/22/62366-el-ministerio-de-cultura-de-la-nacion-presento-su-nuevo-gabinete.php">http://prensa.argentina.ar/2015/12/22/62366-el-ministerio-de-cultura-de-la-nacion-presento-su-nuevo-gabinete.php</a>
지난 11월, 대선 직후 발표되었던 신임 연방정부 문화부 장관 알레한드로 빠블로 아베슈또(Alejandro Pablo Avelluto)가 12월 10일, 200주년 기념 박물관(Museo de Bicentenario)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첫 개편관련 소식은 신임장관이 21일 새롭게 개편된 문화부를 함께 이끌어갈 담당자들, 새로 임명된 문화부 산하기관 관장급 인사들과, 일부 문화계 인사들을 초청한 비공식적 모임을 통해 전해졌다. 국립 장식박물관(Museo Nacional de Arte Decorativo) 정원에서 진행된 이 모임에는 문화 및 창의성 (Cultura y Creatividad) 부문을 이끌 Enrique Avogadro, 국제협력 및 연방통합(Integración Federal y Cooperación Internacional)을 이끌 Iván Petrella, 문화유산(Secretario de Patrimonio Cultural) 부문을 책임질 Américo Castilla 등의 인사가 발표되었다.	
신임 장관인 아베슈또는 '혁신(innovación)', '지방분권화(descentralización)', '창의성(creatividad)', '오픈콜(concursos abiertos)' 등의 단어들을 거듭 사용하며, 아르헨티나 각 지방에 골고루 문화산업을	

발전할 수 있도록 전국적 네트워크를 강화에 힘쓸 것임을 밝혔으며, 문화는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 새롭게 개편된 아르헨티나 연방정부 문화부 조직도:

<http://www.cultura.gov.ar/institucional/>

※ 12월 21일 국립장식박물관에 모인 새롭게 개편된 문화부의 관계자들 및 문화계 인사들

Quién es quién

Nombres, cargos y objetivos de los 24 funcionarios confirmados para la nueva gestión

**MÁXIMO JACOBY**  
EMPRENDEDORISMO CULTURAL

**ALEJANDRO CACETTA**  
INCAA  
"El cine argentino está parado en un lugar más que bueno. El desafío es lograr más audiencia. Que más cine nacional sea más visto en el país"

**JUAN URRACO**  
CULTURA CIDADANA

**JULIETA GARCÍA LENZI**  
JEFA DE GABINETE

**ALEJANDRINA D'ELÍA**  
CULTURA Y CREATIVIDAD

**LILIANA PIÑEIRO**  
PATRIMONIO Y MUSEOS  
"Vamos a llamar a concursos para el 100% de los cargos de directores de museos nacionales"

**MACELO ALLASINO**  
INSTITUTO NACIONAL DEL TEATRO  
"Es ahora de focalizarnos en la promoción del teatro y de intentar poner la vara más alta en lo que hace al desarrollo profesional"

**MORA SCILLAMÁ**  
INDUSTRIAS CREATIVAS

**MIRTA BONNIN**  
INVESTIGACIÓN CULTURAL

**OMARA BARRA**  
GESTIÓN Y PROGRAMACIÓN

**INÉS SANGUINETTI**  
DIVERSIDAD CULTURAL COMUNITARIA

**SERGIO DI FONZO**  
COORDINACIÓN ADMINISTRATIVA

**LEANDRO DE SAGASTIZÁBAL**  
CONARIP

**ANDRÉS DUPRAT**  
MUSEO NACIONAL DE BELLAS ARTES

**CLAUDIA CABOULI**  
BIENES Y SITIOS HISTÓRICOS

**CARMEN SYCZ**  
GESTIÓN PATRIMONIAL

**IVÁN PETRELLA**  
COOPERACIÓN CULTURAL  
"La Argentina es una superpotencia cultural, pero el desarrollo no está federalizado. Falta internacionalizar nuestra cultura. Podemos contribuir y aprender del mundo"

**CAROLINA BIGNARD**  
FONDO NACIONAL DE LAS ARTES

**ALBERTO BELLUCCI**  
MUSEO NACIONAL DE ARTE DECORATIVO

**ANDRÉS BRIGNICOW**  
ECONOMÍA CREATIVA

**DÉBORA STAIFF**  
CULTURA CIDADANA

**ENRIQUE AVOGADRO**  
CULTURA Y CREATIVIDAD  
"Quizás para fines de enero tendremos los resultados de las auditorías administrativa y de recursos humanos de todo el ministerio"

**PABLO AVELLUTO**  
MINISTRO  
"La Argentina nos necesita a todos. Tenemos por delante una tarea fascinante y un enorme compromiso federal con todo el país"

**AMÉRICO CASTILLA**  
PATRIMONIO CULTURAL  
"Las jóvenes generaciones tienen que incorporarse en los museos. Hay que cambiar las formas anquilosadas de narrar los museos"

**JUAN MANUEL BEATI**  
MECENAZGO

출처: La Nacion 12월 22일자 기사

<http://www.lanacion.com.ar/1856313-sin-grandes-anuncios-se-presento-el-equipo-de-cultura>

정책 및 소식	전문가 심사 방식으로 선출된 아르헨티나 국립미술관 새 관장 Andrés Duprat
관련링크	<a href="http://www.cultura.gov.ar/noticias/andres-duprat-asumio-como-nuevo-director-del-museo-nacional-de-bellas-artes/">http://www.cultura.gov.ar/noticias/andres-duprat-asumio-como-nuevo-director-del-museo-nacional-de-bellas-artes/</a>

12월 15일(화), 신임 문화부장관 Pablo Avelluto 및 아르헨티나 주요 미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르헨티나 국립미술관(Museo Nacional de Bellas Artes; MNBA)의 새로운 관장으로 임명된 건축가이자 큐레이터 안드레 두프랏(Andrés Duprat)의 취임식이 진행되었다.

Duprat 신임관장은 지난 9월 처음으로 시도된 퍼블릭 경쟁심사 방식을 통해 선출되어 더욱 화제를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이 심사에서 여러 후보자들 가운데 Duprat은 90.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적으로 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 내 가장 큰 규모의 미술관의 수장이 된 Duprat은 취임식 연설에서 미술관이 단지 미술품의 보존과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닌, 더욱 대중과 소통함으로써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장소로서의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자세한 인물정보는 [문화예술 디렉토리 - 인물] 참고 (본 리포트 8 페이지)

※ **태그:** 문화부, 아르헨티나, 국립미술관, 신임관장, 취임식, Andrés Duprat, Museo Nacional de Bellas Artes, MNBA

정책 및 소식	아르헨티나 국립예술기금 새 대표에 Carolina Bisquard 임명
관련링크	<a href="http://www.cultura.gob.ar/noticias/el-fondo-nacional-de-las-artes-tiene-nueva-presidenta/">http://www.cultura.gob.ar/noticias/el-fondo-nacional-de-las-artes-tiene-nueva-presidenta/</a> <a href="http://www.clarin.com/cultura/Fondo-Artes-artistas-llegaba-tercio_0_1531647159.html">http://www.clarin.com/cultura/Fondo-Artes-artistas-llegaba-tercio_0_1531647159.html</a>



아르헨티나 연방문화부는 지난 2월 22일, 국립예술기금(Fondo Nacional de las Artes)의 새로운 대표로 Carolina Bisquard를 임명하였다고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국립예술기금은 아르헨티나 내 문화, 예술, 문학 활동의 진흥을 위해 1958년에 연방문화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과 지원정책을 통해서 아르헨티나 문화예술의 성장 및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대표로 임명된 Bisquard는 사회적 기관의 경영 및 재정관리의 스페셜리스트로, 뉴욕 New School에서 '비영리조직경영'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문화산업(Industrias Culturales)의 국가 디렉터를 지낸바 있다.

현재, Bisquard는 Comisión Directiva del Patronato de la Infancia와 Directorio Internacional de la Fundación Futuro Latinoamericano의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Bisquard는 아르헨티나 경영대학(Universidad Argentina de a Empresa), 벨그라노 대학의 협상 학부(Escuela de Negocios de la Universidad de Belgrano), Universidad Austral의 Institutional Relations 프로그램 등에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신문과 잡지에 소셜 섹터에 관한 다양한 글을 기고해 왔다.

Bisquard는 대표 임명 공식 발표 후, 한 인터뷰에서 “국립예술기금이 아르헨티나의 아티스트들을 위한 전략적 투자자로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재임기간동안 기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아르헨티나 국립예술기금 홈페이지: <http://www.fnartes.gov.ar>

정책 및 소식	<p align="center"><b>“Verano en la ciudad (Summer in the city)”</b>  <b>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에서 100여개의 여름맞이 무료 문화행사 진행</b></p>
관련링크	<p><a href="http://festivales.buenosaires.gov.ar/2016/veranociudad/es/noticias/7084/vivamos-un-gran-verano-en-la-ciudad">http://festivales.buenosaires.gov.ar/2016/veranociudad/es/noticias/7084/vivamos-un-gran-verano-en-la-ciudad</a></p>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 문화부는 여름을 맞이하여,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100여개의 무료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여름 축제 - 도시에서의 여름 (Verano en la ciudad)”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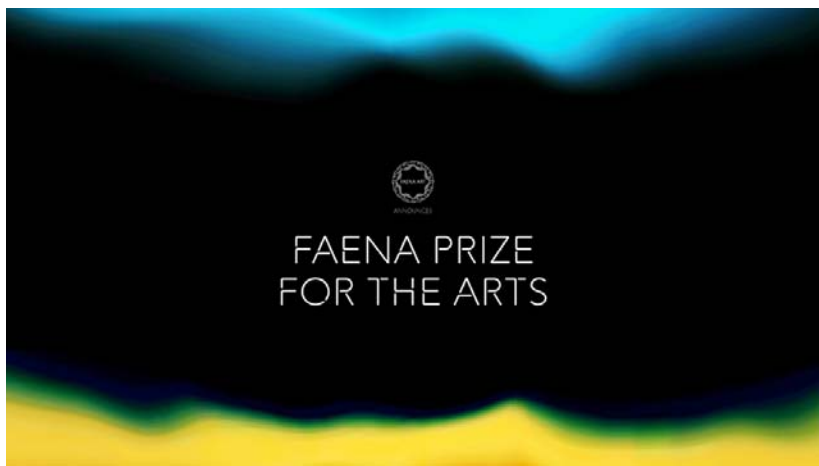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의 콜론 극장 옆에 위치한 플라자 바티카노(Plaza Vaticano)와 팔레르모 지역에 위치한 장미공원(Rosedal de Palermo), 라보카 지역에 위치한 까미니토 야외극장(Teatro Caminito) 등지에서는 매일 다양한 재즈, 팝, 민속음악 콘서트, 영화상영, 그리고 연극 등이 선보여 졌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영화제(BAFICI)의 지난 2015년 에디션에서 주목을 받은 영화들도 함께 상영되었으며, 특히, 매주 일요일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가 상영되어, 많은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상영장소를 찾았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는 총 60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이번 행사에 참석했으며, 성공리에 본 행사가 마무리 되었음을 밝혔다.

※ Verano en la Ciudad 홈페이지: <http://festivales.buenosaires.gob.ar/2016/veranociudad/es/home>



정책 및 소식 관련링크	파에나 아트센터, 7만 5천불 상금걸린 아티스트 오픈콜 진행 <a href="http://www.faena.com/faena-art-center/faena-prize/">http://www.faena.com/faena-art-center/faena-prize/</a>
-----------------	--



파에나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인 파에나 아트 재단(FAENA ART FOUNDATION)은 미주 권역에서 권위있는 예술분야 상으로 알려진 Faena Prize를 위한 제 5회 오픈콜이 3월 14일부터 올 8월 10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만 18세 이상, 현재의 현대미술씬을 바꾸기 원하는 아티스트라면 장르, 국적 불문하고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오픈콜에서 당선된 아티스트는 파에나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파에나 아트센터(부에노스 아이레스 소재)에서 2017년도에 전시의 기회가 주어진다. 상금 7만 5천불 중, 2만 5천불은 직접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며 나머지 5만불은 당선된 아티스트가 제출했던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작비로 지원된다.

2016년 심사위원으로는 뉴욕의 디아 아트 파운데이션 관장인 Jessica Morgan, 부에노스 아이레스



라틴아메리카 미술관(MALBA) 큐레이터인 Lucrecia Palacios, 마이애미의 프레즈 미술관 관장인 Franklin Sirmans 등이 있다.

지난 파에나 프라이즈 당선 아티스트는 Cayetano Ferrer (2015), Fundación Vairoletto (2013), Martín Sastre (2012)이다.

\*지원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http://assets.faena.com/wp-content/uploads/sites/5/2014/08/FaenaPrize\\_BasesEN\\_Ok.pdf?\\_ga=1.252523529.1072623990.1457963793](http://assets.faena.com/wp-content/uploads/sites/5/2014/08/FaenaPrize_BasesEN_Ok.pdf?_ga=1.252523529.1072623990.1457963793)

정책 및 소식	아르헨티나 국립예술기금 창작지원기금액 대폭 증액 발표
관련링크	<a href="http://www.cultura.gov.ar/noticias/el-fondo-nacional-de-las-artes-triplica-los-beneficios-para-la-cultura/">http://www.cultura.gov.ar/noticias/el-fondo-nacional-de-las-artes-triplica-los-beneficios-para-la-cultura/</a> <a href="http://www.lanacion.com.ar/1889501-nuevos-directores-y-mas-dinero-para-incentivar-la-actividad-cultural">http://www.lanacion.com.ar/1889501-nuevos-directores-y-mas-dinero-para-incentivar-la-actividad-cultural</a>



아르헨티나 내 문화, 예술, 문학 활동의 진흥을 위해 1958년에 연방 문화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지난 60년 간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과 지원정책을 통해 아르헨티나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아르헨티나 국립예술기금(Fondo Nacional de las Artes)'가 지난 4월 14일 앞으로 지원 총액을 3배가량 증가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연방문화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지 제목 참고: "El Fondo Nacional de las Artes triplica sus beneficios")

지난 2월 새로 부임한 새 대표 Carolina Biquard의 지휘 아래, 국립예술기금(FNA)은 2016년 한해 총 8천만 페소 (약 550만 달러)를 투입하여, 각종 지원금 및 기금, 장학금, 대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아르헨티나 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예술기금이 발표한 8천만 페소는 2015년에 비해 3배로 증대된 금액으로, 발표 직후, 아르헨티나 내 각종 유력 일간지들은 이 소식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사를 게재하는 등 문화예술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음악, 시각예술, 공연예술, 무용, 문화유산, 미디어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 지원금(becas)은 지난 해보다 만 페소가 증대한, 최대 3만 페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당 5만 페소를 지급하는 200건의 200주년 기념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5월부터 시작되며, 9월에 최종 선정자를 발표한다.

지원 시기가 정해져 있는 지원금 제도와 달리, 연간 언제든 지원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재단이나, 조합 등의 단체의 '인프라 구조'를 지원위한 기금이 신설되었고, 최대 200,000 페소까지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티스트들이 낮은 이자율로 창작에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인 '대출금

제도' 또한 기존의 200,000페소에서 500,000페소로 대출금을 증액하였으며,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영세 독립극장들이 전기 장치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고, 연간 16%의 이율로, 60번에 나누어서 갚아 나갈 수 있는 대출금 제도도 운영한다.

또한, 디자인 분야 및 문자(Letras) 분야에서의 기금 신설도 발표되었다.

국립예술기금이 운영하는 각종 지원금 및 기금과 관련한 세부정보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 [참고] 아르헨티나 국립예술기금 Fondo Nacional de las Artes

- 전화 : (+54) 11 4343-1590
- 주소 : Alsina 673 - CP 1087,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 이메일 : [fnartes@fnartes.gov.ar](mailto:fnartes@fnartes.gov.ar)
- 홈페이지 : [www.fnartes.gov.ar](http://www.fnartes.gov.ar)

정책 및 소식	<b>제18회 부에노스 아이레스 국제독립영화제(BAFICI) 개최</b>
관련링크	<a href="http://festivales.buenosaires.gob.ar/2016/bafici/es/home">http://festivales.buenosaires.gob.ar/2016/bafici/es/home</a>




아르헨티나의 마르 델 플라타 영화제와 더불어 남미의 대표적인 국제영화제 중 하나인 부에노스 아이레스 국제독립영화제가 올해로 제 18회를 맞아, 지난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 영화관 및 미술관, 공원 등 27곳에서 개최되었다. 4월 13일, 유진 그린(Eugene Green)감독의 <요셉의 아들(Le Fils de Joseph)>을 시작으로 대단원의 막을 올렸으며, 올해 영화제 측은 다양한 관객들의 취향을 고려해, 가장 핵심인 경쟁부문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단편 영화를 엿볼 수 있는 <아르헨티나 단편 무에스트라>, <심야 특별 상영>, <파노라마>,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대표적 명물인 천문대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시네 플라네타리오>, <영화와 음악>, 아이들을 위한 영화를 제공하는 <바피시토>등 다양한 프로그래밍으로 더욱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국제 경쟁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은 아르헨티나 영화 The Long Night of Francisco Sanctis 가 차지하였다.

영화제를 찾은 한국영화는 홍상수 감독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비롯해 박보영, 이광수 주연의 <돌연변이>, <중독노래방>, <소통과 거짓말>, <혼자>,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등 6편이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한인 세실리아 강이 연출한 <나의 마지막 실패(Mi ultimo fracaso)>는 아르헨티나 공식경쟁부문에 출품되어 15편의 영화와 경쟁을 펼쳤다.

[ 국제 경쟁부문 수상작 리스트 - INTERNATIONAL COMPETITION ]

Best film: The Long Night of Francisco Sanctis (Argentina), Andrea Testa & Francisco Marquez  
 Special jury prize: La noche (Argentina), Edgardo Castro  
 Special mentions: Rosa Chumbe (Peru), Jonatan Relayze Chiang; John From (Portugal/France)  
 - Joao Nicolau  
 Best director: Tamer El Said (In the Last Days of the City)  
 Best actor: Diego Velazquez (The Long Night of Francisco Sanctis)  
 Best actress: Liliana Trujillo (Rosa Chumbe)

<p>정책 및 소식                  관련링크</p>	<p>제42회 부에노스 아이레스 국제도서전 개최  <a href="http://www.el-libro.org.ar/">http://www.el-libro.org.ar/</a></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 0 20px;"> <p>42.<sup>a</sup> Feria                      Internacional                      del Libro                      de Buenos Aires</p> </div>  </div> <p>스페인어권 최대 규모, 전세계 5대 규모의 국제도서전으로 자리매김한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 도서전 행사가 지난 4월 21일 개막하여 5월 9일까지 진행된다.</p> <p>행사는 전문가들을 위한 행사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진행된다. 전문가를 위한 행사에서는 매우 다양한 심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출판업의 양성과 현대화, 인적 자원의 육성, 해외 수출 활성화, 전문가들을 위한 정보 교환의 장, 저작권 관련 협의체 등이 있다.</p> <p>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 도서전은 주최기관, 작가, 출판인, 서점관계자, 학생, 교수 등 문학과 남미 출판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박람회이자,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행사이다. 아르헨티나 연방문화부는 국제도서전에 참가하여 부스(booth 602)를 마련하고 “Experience Culture”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도서전을 찾는 많은 관람객들이 문화부가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있다.</p> <p>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은 국제도서전에 매년 참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한국관’을 개설하여 관람객들에게 한국의 도서 및 콘텐츠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오는 5월 7일에는 ‘한국의 날’ 행사를 준비하여 ‘디지털 컨버전스: 한국의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2월 3일 국립대학(UNTREF)’ 스텔라 뿌엔데 학장과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입상한 정유미 작가의 여러 작품을 스페인어로 번역해 한국 콘텐츠의 우수성을 중남미에 알리고 있는 콜롬비아 출판사 대표도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p> <p>추가정보: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도서전 공식 홈페이지 - <a href="http://www.el-libro.org.ar/">http://www.el-libro.org.ar/</a></p>	



(좌)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도서전 참가 포스터  
 (우)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도서전에 참가 중인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부스 모습

[공간]

공간명	Coleccion de Arte Amalia Lacroze de Fortabat		
유형	미술관 (사립)	장르	시각예술



주 소: Olga Cossettini 141, Puerto Madero (C1107CCC) Buenos Aires. Argentina  
 전 화: +54 (11) 4310-6600  
 이메일: [info@coleccionfortabat.org.ar](mailto:info@coleccionfortabat.org.ar)  
 홈페이지: <http://www.coleccionfortabat.org.ar/>  
 디렉터: Jose Maria Ugarte

포르타бат 미술관(Coleccion de Arte Amalia Lacroze de Fortabat)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 푸에르토 마데로(Puerto Madero) 지역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미술관으로, 2008년 10월 개관했다. 비영리 단체인 아말리아 라그로제 데 포르타бат 재단 (Fundación Amalia Lacroze de Fortabat)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재단 설립자인 포르타бат 여사(1921-2012)는 생전에 아르헨티나의 가장 부유한 여성으로 손꼽혔으며, 자선가로 활동하며 문화·예술 분야 다양한 기부활동을 펼친 인물이다.

미술관은 현재 200점이 넘는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크게 아르헨티나 아트 콜렉션과 로댕, 달리, 샤갈, 클림트 등의 작품이 포함된 인터네셔널 아트 콜렉션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앤디워홀이 그린 포르타бат 여사 초상화도 포함되어 있다. 소장품 상설전시 외에도, 꾸준히 기획전을 선보이고 있다. 2014년에 한국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 기획전 『동시적 울림(Simultaneous Echoes)』이 포르타бат 미술관 본관 2층에서 진행되었다.

포르타бат 미술관의 건물은 유명한 우루과이 건축가 라파엘 비놀리(Rafel Viñoly)가 디자인을 담당하였으며, 총 6,800m<sup>2</sup>의 공간으로, 전시실 외에도 강의실, 뮤지엄샵, 카페, 이벤트 홀 등 각종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 최근 개최된 주요전시

- 2015. 5. 28 - 8. 16 MARCELO POMBO
- 2015. 3. 6 - 5. 3 RAPSODIA INCONCLUSA - NICOLA COSTANTINO
- 2014. 11. 13 - 2015. 2. 22 Los Viajes de Nushi
- 2014. 10. 22 - 2015. 2. 1 YESO. SPLASH IN VITRAUX

※태그: #Fortabat #포르타бат #Puerto Madero #시각예술 #미술관 #콜렉션 #동시적울림

공간명	FoLa - Fototeca Latinoamericana		
유형	전시/아카이브	장르	사진



주 소: Godoy Cruz 2620 / 2626, Buenos Aires, Argentina  
 전 화: +54 5789 2773  
 이메일: [info@foLa.com.ar](mailto:info@foLa.com.ar)  
 홈페이지: [www.foLa.com.ar](http://www.foLa.com.ar)



FoLa Fototeca Latinoamericana (이하, FoLa)는 2015년 10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새롭게 문을 연 신생 공간으로, Buenos Aires Photo 페어를 처음 시작한 Gastón Deleau에 의해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은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의 현대 사진 작품을 수집과 보존,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시각이 담긴 전시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의 사진 작품을 더욱 알리는 데 있다.

총 면적 1200평방미터를 자랑하며, 3개의 전시실(Sala Principal, Sala Temporal, Sala Colección Permanente)과 더불어 오디오리움, 사진 관련 서적과 오브제를 위한 특별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FoLa는 현재 Doris Salcedo, Vik Muniz, Alfredo Jaar, Alexander Apóstol, Graciela Iturbide, Roberto Huarcaya, Javier Silva, Gastón Ugalde, Marcos López, Nicola Costantino, Esteban Pastorino, Luis González Palma 등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사진 250여 점을 컬렉션으로 보유하고 있다.

2016년 3월부터는 전시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FARFOCO (Annual Forum for Reflection on Contemporary Photography), 포트폴리오 심사(the Program for the Revision of Portfolios), 아티스트 레지던시, 예술 사진 관련 출판물 제작 등을 계획 중이다.

※ 태그: #FoLa #fototeca latinoamerica #사진 #라틴아메리카 #컬렉션 #전시공간 #아티스트 레지던시 #포트폴리오 #출판

공간명	Museo de Arte Moderno de Buenos Aires (MAMBA)		
유형	미술관 (공립)	장르	시각예술(현대미술)



주 소: Av. San Juan 350, Buenos Aires, Argentina  
 전 화: (+54) 4342 - 2938  
 이메일: mambamail@gmail.com  
 홈페이지: www.buenosaires.gob.ar/museoartemoderno

부에노스 아이레스 근대미술관(Museo de Arte Moderno de Buenos Aires, 이하 MAMBA)는 시정부 문화부가 운영하는 시 산하기관으로, 1956년 처음 문을 열었다. 초기에는 다른 곳에 위치해 있다가, 1986년 담배창고였던 지금의 건물을 개조하여 산델모 지역으로 이사하였다. 2012년 문을 연, 부에노스 아이레스 현대미술관(Museo de Arte Contemporáneo de Buenos Aires)과 나란히 위치에 있다.

2006년에 MAMBA는 5년간 1500만 달러를 투입하여 리노베이션을 진행하였고, 2010년, 12월 새롭게 대중에게 오픈하였다. 1920년대부터 현대미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국내외 작품 7000여점을 컬렉션으로 보유하고 있다. 최근 기증 받은 주요 소장품 중에는 A. Segui, L.과 P. Audivert Seoane 등의 판화 컬렉션이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작가들의 사진작품 및 산업디자인 관련 컬렉션 등이 있다.

다양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각 층별 전시실 외에도 1층에는 서점과 교육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지하에는 극장이 있어 다양한 퍼포먼스 및 공연, 세미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 ※ 최근 개최된 주요전시
- 2015.10월 - 11월 Marta Minujín 개인전
- 2015. 4월 - 11월 Marina De Caro 회고전
- 2015. 8월 - 9월 <El borde de simismo> 퍼포먼스 시리즈

※ 태그: #MAMBA #Museo de Arte Moderno de Buenos Aires #미술관

공간명	Centro de Arte Experimental UNSAM		
유형	복합문화공간	장르	시각/음악/공연/ 다원예술



주 소: Sánchez de Bustamante 75, Buenos Aires, Arentina  
 전 화: :(+54) 4006 - 1500, 4724 -1500  
 이메일: comunicacion.institucional@unsam.edu.ar  
 홈페이지: www.unsam.edu.ar

산 마르틴 국립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de San Martín, 이하 UNSAM)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에 위치한 실험예술센터이다. 총 면적은 7500평방미터로, 기존의 전력저장소로 쓰이던 곳을 개조하여, 2013년 복합문화공간으로 대중에게 오픈하였다. 2년 정도 된 신생공간이지만, 다양한 현대예술작품들을 선보이며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곳이다.

공간명이 나타내듯, 실험적인 예술을 선보이는데 그 포커스를 두고 있다.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미술, 음악, 무용, 퍼포먼스, 디지털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형태의 복합 예술을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봄, 처음으로 개최된 Bienal de Performance 2015에서 세계적인 퍼포먼스 아티스트인 Marina Abramović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올해 구겐하임 미술관의 Hugo Boss Prize 후보로 오르기도 한, 쿠바 출신의 작가 Tania Bruguera 작품의 무대가 되기도 하였다.

올 10월, 한국의 하땅세 극단이 <파우스트 I + II> 공연을 선보인 바 있으며, 한국의 실험적인 공연 및 전시 소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내년도 여러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과의 여러 협력 사업들이 기대되는 곳이다.



※태그: #culturaUNSAM #UNSAM #CulturaUNSAM #산마르틴국립대학 #실험예술 #복합예술 #다원예술 #퍼포먼스 #비엔날레 #Bienal de Performance #Marina Abramović #Tania Bruguera #하땅세 #공연



공간명	Casa Nacional del bicentenario		
유형	복합문화공간	장르	시각/공연/영화/교육



주 소: Riobamba 985, C1116ABB, Buenos Aires, Argentina  
 전 화: +54 (11) 4813.0301 / 0679  
 이메일: [asa@casadelbicentenario.gob.ar](mailto:asa@casadelbicentenario.gob.ar)  
 홈페이지: <http://www.casadelbicentenario.gob.ar>



독립 200주년 기념관(Casa Nacional del bicentenario) 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의 레콜레타 (Recoleta) 지역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5월 혁명의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키르치네르 대통령 시절 이 공간의 설립 계획안이 통과되었으며, 2010년 3월 16일 공식적으로 개관한 연방정부 문화부 산하 기관이다. 지난 200년간의 아르헨티나 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포용하기 위해, 전시, 세미나, 영화, 음악, 무용, 연극 등 여러 장르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한다.

건물의 총 면적은 3,500평방미터이며, 전시실, 도서관, 야외공연장, 영화상영관, 디지털 아카이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공간을 찾는 방문객들이 지난 200년 동안의 아르헨티나 역사를 다각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건물의 로비에는 상설 영상물인 'Muchas voces, una historia. Argentina 1810-2010 (Many Voices, One Story)'가 6개의 스크린에서 동시 상영되고 있다.

2010년 개관 당시, 첫 전시로 다양한 시각예술 작품들을 통해 아르헨티나 내 여성의 역사에 주목한 <Mujeres. 1810-2010 (기획: Valeria González)>을 선보여, 국내외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 태그: #복합문화공간 #문화부 #독립 200주년 기념관 #Casa Nacional del bicentenario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 역사 #시각예술 #공연예술 #영상

공간명	PRISMA KH		
유형	문화공간	장르	시각/복합예술



주 소: Wenceslao Villafañe 485, Buenos Aires, Argentina  
 전 화: (+54) 4300 0802 / 4300 2545  
 이메일: [info@prisma-kh.com](mailto:info@prisma-kh.com)  
 홈페이지: <http://prisma-kh.com/>



Prisma-KH는 11년간 갤러리스트로 활동해 온 알베르토 센드로스(Alberto Sendrós)가 2015년 4월,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 남쪽에 위치한 라보까(La boca)지역, 아트 디스트릭트(Distrito de las Artes)에 오픈한 공간이다. 일반 갤러리와 달리, 상업성을 배제하고 독일의 쿤스트할레(Kunsthalle) 개념을 적용한 문화공간으로, 시각예술작품의 전시와 함께 연극, 영화,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코디네이터: Daniela Var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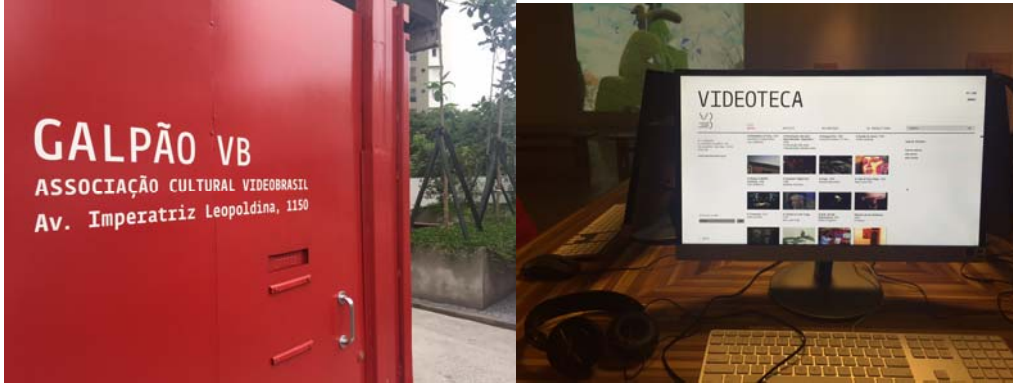
※ 태그: Alberto Sendrós, Prisma, KH, 쿤스트할레, La boca, 라보까, 부에노스 아이레스, 문화공간, 전시

공간명	Galpão VB		
유형	전시공간	장르	시각/복합예술
주 소: Av. Imperatriz Leopoldina, 1150, Vila Leopoldina - São Paulo - SP BR 전 화: +55 11 36450516 이메일: comunicacao@videobrasil.org.br 홈페이지: <a href="http://site.videobrasil.org.br/en/galpaovb">http://site.videobrasil.org.br/en/galpaovb</a>			
<b>Galpão VB</b> 는 비디오브라질 문화협회(Associação Cultural Videobrasil)*의 헤드쿼터로 2015년 10월 상파울루의 Vila Leopoldina 서부지역에 새롭게 문을 연 신생공간으로, 협회의 지난 30년간의 활동을 보여주는 비디오 컬렉션과 아카이브 약 10,000여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공간 및 리서치 센터로 활			

용하고 있다. 전시실과 비디오 감상실, 리딩룸, 야외가든 등을 포함하여 총 면적 800평방미터에 이른다.

비디오 컬렉션은 비디오 브라질 현대미술제에 초청되었던 작품을 비롯하여, 아티스트들이 기부한 작품들, 국제적으로 중요한 비디오 아트 작품들, 퍼포먼스 영상, 다큐멘트 영상, 출판물, 문서 등으로 구성된다. 총 10,000여점에서 현재까지 4,500여점 정도가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리되어 있다.

리딩룸에는 비디오 라이브러리(VIDEOTECA)가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1,300여점이 넘는 작품들을 찾아 볼 수 있게 되어있다.



※ 태그: Galpão VB, 상파울루, 비디오브라질, VIDEOTECA, 전시공간, 아카이브, 비디오아트

공간명	MUNTREF CENTRO DE ARTE CONTEMPORÁNEO - SEDE HOTEL DE INMIGRANTES		
유형	미술관	장르	시각예술



주 소: Hotel de Inmigrantes. Av. Antártida Argentina 1355, Buenos Aires, Argentina  
 전 화: 4893-0322  
 이메일: muntrefcac@untref.edu.ar  
 홈페이지: <http://untref.edu.ar/muntref/centro-de-arte-contemporaneo/>



‘2월 3일 국립대학박물관’ (Museo de la Universidad Nacional de Tres de Febrero) 소속의 현대미술 센터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에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전시를 마련하고 있다.

원래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서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왔던 이민자들을 위한 숙박시설로 사용되던 곳을 1974년, 미술관으로 탈바꿈 하였다.

현재 디렉터는 아니발 호자미 (Aníbal Jozami)이며, 호자미는 2017년도에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비엔날레, UNASUR (Bienal internacional de arte contemporaneo de america der sur)의 디렉터를 겸임하고 있어 앞으로 아르헨티나 현대미술계에 있어 MUNTREF의 역할이 점점 더 증대 될 것으로 보인다.

MUNTREF는 현대미술센터 외에도, 이민 박물관(Museo de la inmigracion)도 운영 하여, 아르헨티나 이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상설전 등을 선보인다.

※ 태그: 2월 3일 국립대학박물관, 현대미술센터, MUNTREF, 아니발 호자미, Anibal Jozami, UNASUR

공간명	URRA		
유형	아티스트 레지던시	장르	시각/복합예술



RESIDENCIAS DE ARTE  
 ART RESIDENCIES AND EXCHANGES

주 소: Ruperto Mazza 165, B1648CCQ Tigre,  
 Provincia de Buenos Aires, Argentina

이메일: [contact@urraurra.com.ar](mailto:contact@urraurra.com.ar)  
 홈페이지: <http://www.urraurra.com.ar/>

2010년 비영리기관으로 설립된 아티스트 레지던시로,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에서 기반을 두고 운영하다가, 2016년 초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에서 북쪽으로 28 km정도 떨어진 'Tigre(띠그레)' 지역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을 개조하여, 새로운 레지던시 공간을 오픈하였다. 2014년부터 시작된 띠그레 시 남부 지역(Distrito de Tigre Sur)의 도시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마이애미, 보고타 등의 도시를 벤치마킹하여 문화예술, 과학 및 혁신 센터로 조성하고자 하는 띠그레 시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URRA는 현재 두 개의 메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하나는 Residencia de arte en Buenos Aires(레지던시 in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여러 나라에서 선발된 아티스트들이 한 달 동안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머무르며 시청각 프리젠테이션, 전시, 오픈스튜디오 등의 액티비티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아르헨티나 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참여 아티스트 선발을 담당한다.

또 다른 하나의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매년 진행 중인 Residencia Mayo (5월 레지던시)이다. '5월'이라는 시점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시각예술행사인 ArteBA(아르테바) 아트페어 기간에 맞춘 것으로, 페어를 방문하는 다양한 층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참여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네트워킹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우) 2016년 새로 오픈한 URRA 레지던시 공간.  
 (좌) 새 레지던시 공간 오픈 기념 행사 포스터

※ 2015년도 URRA 운영조직

Director: Melina Berkenwald  
 General Production: María Cecilia de la Fuente ([urra.produccion@gmail.com](mailto:urra.produccion@gmail.com))  
 Production & Sponsorship: Agustina Mistretta ([amigos.urra@gmail.com](mailto:amigos.urra@gmail.com))

Production Assistance: Lía Comaleras ([urra.argentina@gmail.com](mailto:urra.argentina@gmail.com))

Press Contact: [urrapress@gmail.com](mailto:urrapress@gmail.com)

※ 태그: 레지던시, Residencia, URRRA, 국제교류

공간명	[브라질] Paço das Artes		
유형	문화공간	장르	시각/복합예술



주 소: Av. Europa, 158 - Jardim Europa, São Paulo  
- SP, 01449-000, Brazil

전 화: +55 11 2117-4777

이메일: [pacodasartes@pacodasartes.org.br](mailto:pacodasartes@pacodasartes.org.br)

홈페이지: <http://www.pacodasartes.org.br/>



Paço das Artes는 상파울루 시 문화부 산하 기관으로 1970년 3월 개관한 현대미술 전시공간이다. 시 문화부 산하 기관이지만, 별도 계약을 통해 Association of Paço das Artes Francisco Matarazzo Sobrinho Social Organization of Culture (OS)가 실질적 운영주체이다. OS는 기관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 예산 및 집행, 자산관리, 인력관리, 기기의 보수유지 등의 운영활동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1997년 시작된 이후, 20년 동안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프로젝트 시즌제 <Temporada de Projectos>를 통해, 225여명의 아티스트들과 60여명의 큐레이터들과 평론가들이 작품 및 전시를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양한 국내외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는 전시 뿐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행사로 현대미술 관련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한다.

1987년부터 전시 도록을 비롯한 다양한 출판물을 제작해왔으며, 2016년부터 체계적인 출판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제미술계에 상파울루의 현대미술씬을 제대로 소개하기 위한 영문이 포함된 서적들의 출판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기관에서 발행하는 모든 전시도록에도 포어와 함께 영문을 함께 출판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 PAÇO DAS ARTES 조직

**Executive Director**

ANDRÉ STURM

**Administration-Finance Director**

JACQUES KANN

**Technical Director and Curator**

PRISCILA ARANTES

※ 태그: 상파울루, Paço das Artes, 시문화부, OS, 전시공간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Gallery Night		
유형	축제	장르	시각예술



설립년도: 2001년  
 개최시기: 매년 4월 ~ 12월 사이  
 개최도시: 부에노스 아이레스

전화: +54 11 4775 8802  
 이메일: [eventosespeciales@artealdia.com](mailto:eventosespeciales@artealdia.com)  
 홈페이지: <http://www.gallery-nights.com.ar/>

갤러리의 밤(Gallery Nights) 행사는 2001년 인터네셔널 아트 매거진인 <Arte al Dia>의해 처음 시작된 이래로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 문화부의 후원에 힘입어 지난 15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현재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의 중요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크게 두 노선으로 나누어 진행을 하는데, 레티로, 레콜레타, 바리오 노르떼(Retiro/Recoleta/Barrío Norte)지역의 갤러리들을 묶은 Centro노선과 Palermo/ Villa Crespo 노선으로 나뉜다.

모든 갤러리는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방문객의 지역 간 이동을 도와줄 무료미니셔틀버스 또한 제공된다. 2015년 갤러리의 밤 행사에서는 시정부가 운영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인 Ecobici (도심자전거)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되어, 관객들이 무료로 자전거를 타고 갤러리 간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 2015년 갤러리의 밤 행사일정
- [Centro구역- Retiro/ Recoleta/ Barrío Norte]
- 2015년 4월 16일, 19시~22시
- 2015년 9월 10일, 19시~22시
- 2015년 11월 12일, 19시~22시
- [Palermo/ Villa Crespo 지역]
- 2015년 5월 9일, 11시~15시
- 2015년 10월 17일, 12시~16시
- 2015년 11월 28일, 12시~16시



※태그: #Gallery Nights #갤러리의 밤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 문화부 #문화행사 #무료관람 #Arte al Dia



축제/행사명	Festival Internacional Video Danza BA		
유형	페스티벌	장르	비디오댄스
	설립년도: 1995년 개최시기: 매년 9월 경 개최도시: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소: Junin 1930; Calle Aguero 2502, Buenos Aires 1113 Argentina 전화: +54 11 4811 3117 이메일: <a href="mailto:videodanzaba@gmail.com">videodanzaba@gmail.com</a> 홈페이지: <a href="http://www.videodanzaba.com.ar/">http://www.videodanzaba.com.ar/</a>		

부에노스 아이레스 국제 비디오댄스 페스티벌 (이하, Video Danza BA)은 **Silvina Szperling\***에 의해 1995년 설립되었으며, 그 해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에 위치한 Ricardo Rojas Cultural Centre에서의 첫 페스티벌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2015년 20주년을 맞이하는 행사이다. '비디오댄스'라는 장르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와 함께, 비디오댄스 창작 증진 및 아티스트 간의 교류 (특히, 라틴 아메리카 권역 내에서의 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4년에는 메르코수르 비디오댄스 협회 (Circuito Videodanza Mercosur)의 회원으로 가입되었다. 2005년부터는 페스티벌 개최 외에도, 영국의 South East Dance와 같은 해외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세미나 및 워크숍 진행 등의 연중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7년과 2009년에는 페스티벌과 함께 국제 비디오댄스 심포지엄(Simposio Internacional de Videodanza)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매년 작품 공모를 실시하는데, 하나의 예술장르로서의 비디오댄스(Videodance as an art form)와 다큐멘터리(Documentaries on dance) 등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모를 통해 선출된 작품은 페스티벌을 통해 선보여진다.

**\*Silvina Szperling:** Video Danza BA의 설립자이자 총감독으로 Circuito Videodanza Mercosur 와 Foro Latinoamericano de Videodanza의 창립멤버로 비디오댄스 장르의 선구자이다.



**XV Festival Internacional VideodanzaBA**  
**20 años: 1995.2015**  
 Energías en transformación  
 Del 15 al 20 de septiembre  
 Centro Cultural de la Memoria Haroldo Conti

축제/행사명	Contemporary Art Festival Sesc_Videobrasil		
유형	페스티벌(비엔날레)	장르	시각예술(미디어아트)



설립년도: 1983  
 개최시기: 격년제(홀수 년도), 10월 ~12월 사이  
 개최도시: 상파울루, 브라질

전화: +55 11 3645 0516  
 주소: Av. Imperatriz Leopoldina, 1150  
 Vila Leopoldina - São Paulo - SP BR  
 이메일: comunicacao@videobrasil.org.br  
 홈페이지: site.videobrasil.org.br

1983년 브라질 국내 다큐멘터리, 비디오 제작자를 후원하기 위해 시작된 “비디오 브라질(Videobrasil)”은 브라질 최초로 비디오아트란 장르에 초점을 맞춘 유일한 행사로서 그 입지를 다져갔으며, 1991년부터는 본격적인 국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로 발돋움하였다.

비디오브라질 문화협회(Associação Cultural Videobrasil)가 페스티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상파울루에서 격년제로 개최된다. 남미를 대표하는 미디어아트 페스티벌로 자리잡은 비디오브라질은 2015년 19회를 맞이하였으며, 100여명이 넘는 세계 각국의 작가들이 작품을 선보인다.

페스티벌 기간동안 영상작품을 중심으로 시네마, 비디오아트 스크리닝과 전시, 포럼, 세미나 등으로 진행이 된다. 지난 페스티벌을 통해 백남준, 빌 비올라, 게리 힐, 코코 푸스코 등 세계적인 작가들이 참여하였다.

2007년부터 작가들을 지원하고, 작가 간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 중인데, 오대륙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교육, 연구, 제작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진행된다.

<비디오브라질 레지던시의 네트워크 현황을 알려주는 구글맵\_출처: 비디오브라질 홈페이지>



19회 비디오브라질은 2015년 10월 6일 오픈하였으며, 올 12월 6일까지 진행 중이다. 올해의 주제는 ‘남쪽의 파노라마(Southern Panorama)’이며, 상파울루의 다양한 전시와 영상상영, 아티스트 토크 등의 각종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태그: #비디오브라질 #VIDEOBRASIL #현대미술제 #비엔날레 #SESC #비디오아트 #미디어아트 #전시 #네트워크

축제/행사명	Bienal de la Imagen en Movimiento (BIM)		
유형	비엔날레	장르	시각예술(미디어아트)



설립년도: 2012년  
 개최시기: 격년제 (짝수년도), 11월 ~ 12월 사이  
 개최도시: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

이메일: [airelnahon@bim.com.ar](mailto:airelnahon@bim.com.ar)  
 (Airel Nahon, Production 담당자, BIM)  
[gabrielagolder@gmail.com](mailto:gabrielagolder@gmail.com)  
 (\*Gabriela Golder - 디렉터)  
 홈페이지: [bim.com.ar](http://bim.com.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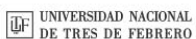


Bienal de la Imagen en Movimiento (이하, BIM) 는 2012년에 첫 회를 개최한 이후, 격년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르헨티나 내, 신생 비엔날레이다. Universidad Nacional de Tres de Febrero(UNTREF)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실험적 비디오아트 및 영상, 영화예술을 선보이고,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어떻게 예술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국제교류 및 담론의 장 형성을 위해 마련된 비엔날레이다.

비엔날레가 열리는 기간 동안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 전역의 여러 문화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작품들이 상영되거나 전시되고, 각종 워크숍과 아티스트 & 큐레이터 토크가 함께 열린다. 2014년에 진행된 BIM의 경우, AlianzaFrancesa de Buenos Aires, Centro Cultural de España en Buenos Aires (CCEBA), Muntref - Centro de Arte Contemporáneo, Teatro Margarita XirguEspacioUntref, Museo de Arte Moderno de Buenos Aires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을 맺어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주요 문화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2016년 제 3회 BIM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며, 이항준이 기획한 <Korean Artist Moving Image 1969 - 2005>를 2016년 비엔날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 중에 있다.

Supported by:



Organized by:



※태그: #BIM #Bienal de la Imagen en Movimiento #비엔날레 #영상 #퍼포먼스 #부에노스 아이레스 #UNTREF #이항준

축제/행사명	메르코수르 비엔날레 (Bienal do Mercosul)		
유형	축제	장르	시각예술



**FUNDAÇÃO BIENAL DO MERCOSUL**

설립년도: 1997년

개최시기: 격년제 (홀수 년도), 10월~12월

개최도시: 부에노스 아이레스

전화: +55 51 3254 7500

주소: Rua Bento Martins, 24, sala 1201, Centro  
Porto Alegre - RS - Brasil

이메일: contato@bienalmercosul.art.br

홈페이지: www.fundacaobienal.art.br

‘메르코수르 비엔날레(Bienal do Mercosul)’은 브라질 최남부 리오 그란데 도 술 주의 포르투 알레그레 시에서 격년제로 개최되는 현대미술 국제 비엔날레이다.

1996년 창설된 비영리 단체인 메르코수르 비엔날레 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10회째를 맞이하였다.

메르코수르 비엔날레는 경제조약으로 맺어진 남미경제공동체 ‘Mercosul’을 기반으로 하며, 시각예술을 매개체로 회원국들간의 통합 및 라틴아메리카 미술의 프로모션에 그 목표를 둔다는 점에서 여타 비엔날레와 차별성을 둔다. 또한, 비엔날레의 교육적인 역할을 매우 강조하여, 매 비엔날레마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 큐레이터를 따로 두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점이라 할 수 있다. 지역 학교들과의 연계 프로그램 또한 매우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를 포함해 멕시코, 칠레,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이 주를 이룬다.

2015년도 제 10회 비엔날레의 주제는 “새로운 아메리카로부터 온 메시지(Messages from a New America)”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미술만을 선보이며 ‘라틴 아메리카 미술의 증진’이라는 비엔날레의 목표에 더욱 초점을 두었다. 총 20개국, 650여점의 작품을 2015년 10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포르투 알레그레 시의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선보인다.



제 10회 비엔날레에 출품된 Alfredo Jaar의 <A logo for America> 설치 전경

※ 태그: #Bienal do Mercosul #메르코수르 #Mercosul #Mercosur #남미공동시장 #비엔날레 #포르투알레그레 #라틴아메리카 #시각예술 #교육

축제/행사명	Bienal de Performance (BP)		
유형	축제	장르	시각예술

BP.15

**Primera Bienal de Performance**  
**27.04.2015 — 07.06.2015**

설립년도: 2015년  
 개최시기: 격년제/ 4 - 6월  
 개최도시: 부에노스 아이레스  
 전화: +54 9 11 6146 6006  
 주소: Angel Carranza 1335, CABA  
 이메일: [info@bp15.org](mailto:info@bp15.org)  
 홈페이지: <http://bp15.org>

‘퍼포먼스 비엔날레 (Bienal de Performance, 이하 BP)’는 아르헨티나 내, 최초로 퍼포먼스에 초점을 둔 비엔날레이다. ‘해프닝(happening)’이 60년대와 70년대 국제 미술계에서 중요한 장르로 영향력을 발휘 할 때,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아르헨티나 출신 작가들의 ‘행위예술’을 기반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국제 행사이다.

BP는 시각예술을 바탕으로 하되, 연극, 무용, 음악 등 다양한 장르 간의 결합을 시도하는 예술들을 선보이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자 한다. 2015년 첫 행사에는 아르헨티나 내, 다양한 문화예술 기관의 큐레이터들이 함께 협력하여 프로그래밍을 하였다. 1회 행사는 2015년 4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개최되었으며, 마리나 아브라모비치(Marina ABRAMOVIC), 로리 안더슨(Laurie ANDERSON)등 유명 아티스트들의 작업을 선보이며, 다양한 뉴스를 만들어 냈다.

BP는 민간에서 발의하여 진행되는 행사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정부 메세나 프로그램을 통해 아르헨티나항공, 코카콜라 등이 후원하고 arteBA, T4F 등의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행사의 총감독은 Graciela Casabé가 맡고 있으며 산마르틴 국립대학(UNSAM), 독립200주년기념관(Casa del Bicentenario), 부에노스아이레스 현대미술관(MALBA) 등 협력기관에서 선정한 7인의 큐레이터가 함께 한다. 또한 전시/퍼포먼스 외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워크숍, 컨퍼런스, 세미나 등 학술 프로그램은 아르헨티나 국립예술대학교(UNA: Universidad Nacional de las Artes)와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철학대학(FILO:UBA)으로부터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성공적으로 첫 행사를 치른 BP는, 제 2회 행사를 2017년 봄에 개최될 예정이다.



※ 태그: Bienal de Performance, BP, 퍼포먼스, 비엔날레, 시각예술, 국제행사

축제/행사명	BAWEBFEST		
유형	축제	장르	시각예술



설립년도: 2015  
 개최시기: 매년 3월  
 개최도시: 부에노스 아이레스  
 전 화: -  
 주 소: -

이 메 일: [contacto@bawebfest.com](mailto:contacto@bawebfest.com)  
 홈페이지: <http://www.bawebfest.com/>

BAWEBFEST는 남미 첫 '웹 시리즈(web series)\*' 전문 국제영화제로 2015년 시작하여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웹 시리즈'가 모바일 중심의 콘텐츠 소비를 이끌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17개의 웹 시리즈 전문 영화제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크게 '공식 초청부문(Selección Oficial)'과 '전시부문(Muestra Paralela)', 이렇게 2가지 섹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축제가 진행되는 4일 간, 비즈니스 미팅, 강연, 참가자와 수상자들이 함께하는 패널 디스커션 등이 펼쳐진다. 이를 통하여, 전세계 웹시리즈 시장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웹시리즈 제작 노하우 공유, 수익모델 벤치마킹 등이 이루어진다.

2016년 행사는 3월 16일에서 19일까지 4일간,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에 위치한 Universidad del Cine (FUC)와 리카르도 로하스 문화센터(CCRRR)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BAWEBFEST 2016에 참가하는 나라들>



\* '웹 시리즈(웹 드라마)'는 5~10분 내외의 짧은 에피소드로 구성된 동영상 시리즈물로,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감상하는 디지털 맞춤형 콘텐츠로, 유튜브나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제작방식이나 장르가 다양해서 해외에서는 '웹 드라마' 대신 '웹 시리즈'라고 부른다.  
 (참고: 국내 웹시리즈 국제영화제 - KWEB FEST <http://kwebfest.com/kor/?ckattempt=1>)

※ 태그: 웹 드라마, 웹 시리즈, web sires, BAWEBFEST, web fest, 부에노스 아이레스

축제/행사명	PARTE		
유형	아트페어	장르	시각예술(현대미술)
	설립년도: 2011년 개최시기: 매년 1~2회 개최 (6월/ 10-11월) 개최도시: 브라질, 상파울루		
	이메일: contato@feiraparte.com.br		
	홈페이지: <a href="http://www.feiraparte.com.br/">http://www.feiraparte.com.br/</a>		

브라질 내 최초이자 유일한 현대 미술 전문 아트페어로, 2011년 아티스트인 Lina Wurzmann 과 변호사인 Tamara Perlman에 의해 설립된 이후로, 매년 상파울루에서 1~2차례 개최해 왔으며, 중요한 아트페어로 자리매김하며 성장 중이다. 현대미술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쉽게 구입이 가능한 비교적 저렴한 작품들을 선보임으로써 영컬렉터나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페어 참가 갤러리들은 참가신청을 한 갤러리들을 대상으로, 페어의 선발위원회에 의해 선발된다. 페어 진행기간 동안 함께 선보이는 “Curator’s Choice” 스페셜 프로젝트는 큐레이터들이 작품을 선발하여 전시를 하고, 관련 세미나를 갖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 2016년 일정

**PARTE Cidade Jardim**

6월 9일~12일, 장소: 브라질, 상파울루, Shopping Cidade Jardim

**PARTE Faria Lima**

11월 2일~6일, 장소: 브라질, 상파울루, Salão Marc Chagal - Clube A Hebraica

※ 지난 3년간 아트페어 실적

2015년: 40개 갤러리, 500여 아티스트 참가

2014년: 44개 갤러리 참가 (브라질-36, 아르헨티나-5, 콜롬비아-2, 미국-1)

2013년: 37개 갤러리 참가

※ 태그: PARTE, 현대미술, 아트페어, 브라질



축제/행사명	[페루] Perú Arte Contemporáneo (PARC)		
유형	아트페어	장르	시각예술(현대미술)
	설립년도: 2013년		
	개최시기: 매년 4월		
	개최도시: 리마, 페루		
	이메일: informes@parc.com.pe		
	홈페이지: <a href="http://www.parc.com.pe/">http://www.parc.com.pe/</a>		

Perú Arte Contemporáneo (PARC)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리는 국제 현대미술 아트페어로 2013년 설립된 이후로 매해 개최되고 있으며, 더 오랜 역사를 지닌 아트 리마(ArtLima)와 함께 페루 내, 주요 아트페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른 아트페어에 비해 특이한 점은 페어의 운영주체 및 개최장소가 현대미술관(MAC)이라는 점이다.

페어 참가 갤러리 목록을 보면, 하지만 아직까지는 페어가 라틴아메리카 및 유럽 국가들에 치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 4회째 개최되는 2016년 행사는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고, 12개국(독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프랑스, 칠레, 미국, 스페인, 멕시코,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페루)의 36개 갤러리가 참여하였다.

주최 측으로부터 매년 초청된 큐레이터들이 각 프로그램의 기획을 담당하는데, 2016년 에디션에서는 영국 테이트 모던의 라틴 아메리카 권역 전문 부큐레이터 출신이자, 현재 콜롬비아 메데진 현대미술관(MAMM)의 수석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에밀리아노 발데스(Emiliano Valdes)가 6개의 Solo Project 기획을 담당하였다.

또한, Video Project에서는 21세기 현대미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르인 비디오 및 미디어에 초점을 맞추어, 2가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퍼포먼스 프로그램에서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 Juani Carrion Yecla를 초청하여 요리 퍼포먼스 'Pigmentum'을 선보였다. 그 외에도, PARC 주최 측은 VIP 관객들을 위한 PARC Lounge를 페어 내에 따로 마련하고 있다.



※ 태그: 아트페어, 현대미술, PARC, Perú Arte Contemporáneo, 페루, MAC, 현대미술관



[인물]

인물명	Agustín Pérez Rubio	소속	MALBA
장르	시각예술기획	연락처	-



**Agustín Pérez Rubio** (43세, 1972년생) 는 국제미술계에 잘 알려진 스페인 출신 큐레이터 및 미술사학자로, 2014년에 부에노스 아이레스 라틴아메리카 미술관(Museo de Arte Latinoamericano de Buenos Aires, 이하 Malba)의 예술감독(Director Artístico)으로 선임되어, 2014년 8월부터 Malba의 모든 프로그래밍과 소장품 구입 및 관리의 총 책임을 맡고 있다.

Rubio는 지난 10년간, 스페인 MUSAC (Museo de Arte Contemporáneo de Castilla y León, Spain)의 수석 큐레이터(2003~2008)와 디렉터(2009~2013)를 역임하였고, 이후 독립기획자로서 세계 유명 기관 및 미술 관계자들과 협력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지금까지 그가 기획한 전시들만 90개가 넘는다. 대표적으로 2003년 제 50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7명의 스페인 작가들의 비디오 작업을 선보인 <Bad Boys>를 기획하였고, Sophie Calle, Pipilotti Rist, Pierre Huyghe, Julie Mehretu, Ugo Rondinone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개인전을 선보인 바 있다. 2014년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대표적 미술행사인 ArteBA의 스페셜 프로그램인 “The U-TURN Project Rooms by Mercedes-Benz”의 기획을 담당하였고, 같은 해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열린 <Unerasable Memories: A historic look at the videobrasil collection>을 기획하였다. 그는 현재 국제비평가협회(AICA-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rt Critics)와 국제현대미술큐레이터협회(IKT-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urators of Contemporary Art)의 회원이기도 하다.

Malba를 운영하고 있는 콘스탄티니 재단이 Rubio에게 새롭게 만들어진 자리인 예술감독직을 맡겼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스페인에서 디렉터로서 MUSAC미술관을 운영하였던 경험과 그가 지니고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는 미술관을 구조적으로 탄탄하게 만들고, Malba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넓히고자 그에 적합한 인물을 물색 중이던 콘스탄티니에게 큰 어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태그: #Agustín Pérez Rubio #MALBA #예술감독 #큐레이터 #콘스탄티니재단

인물명	Alicia de Arteaga	소속	La Nación
장르	언론/ 시각예술비평	이메일	aarteaga@lanacion.com.ar



**Alicia de Arteaga** (65세, 1950년생)는 아르헨티나 유력 일간지인 La Nación 문화예술 분야 편집장으로, 현지 시각예술 분야에서 최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 중 한명이라 할 수 있다.


De Arteaga는 꼬르도바 국립대학 문학과를 졸업하였다. 1982년 La Nación에 입사 이후 30년 이상 재직하며 문화예술 평론가로 활동하며, 아르헨티나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시각문화행사 및 현대미술에 대한 글을 써왔다. 또한, 아르헨티나 내의 다양한 행사의 패널로 초청되며, 2004년과 2007년에는 스페인 마드리드 현대미술아트페어

(ARCO)에도 연사로 초청되었다. 2005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헤럴드 언론인상을 수상했으며, 2007년에는 아르헨티나 비영리 문예진흥재단인 Konex foundation으로부터 예술 저널리즘 분야의 Konex Prize를 수여받았는데, 이 상은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발되며 언론분야에서는 지금까지 1987년, 1997년, 2007년 각 한명씩 총 3명에게만 수여한 국제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은 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훈장기사상(Chevalier des Arts et des Lettres)'을 수여받았고, 브라질 정부로부터 공로훈장(Orden de Rio Branco)을 받은 바 있다.

현재, La Nación 문화예술 분야 편집장과 함께 살바도르 대학의 미디어아트학과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기념물·박물관·유적지를 위한 국가위원회(Comisioacional de Monumentos, Museos y Lugares Historicos)의 멤버이자 매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대규모로 열리는 국제아트페어 ArteBA의 커미티 멤버로도 활동 중이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현대미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베니스 비엔날레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베니스에서 전시되었던 한국 단색화 전시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2012년에 방한경험이 있으며, 방한 중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아르헨티나 현대미술의 흐름 - 사진 작품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한국문화예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과 좋은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핵심인사이다.

※ 태그: #Alicia de Arteaga #La Nación #언론인 #시각예술비평 #ArteBA #Konex Prize #문화예술공로훈장 #ARCO #단색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문화원

<b>인물명</b>	Elda Harrington	<b>소속</b>	Fundación Luz Austral
<b>장르</b>	시각예술기획/ 사진	<b>이메일</b>	<a href="mailto:eldaharrington@gmail.com">eldaharrington@gmail.com</a> <a href="mailto:eldah@eaf.com.ar">eldah@eaf.com.ar</a>
	<p><b>Elda Harrington</b> (71세, 1944년생)은 아르헨티나 내 국제사진페스티벌인 빛의 축제(Festival de la Luz)*의 총감독직을 맡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사진학교(La Escuela Argentina de Fotografia)**의 설립자로 현재도 운영 중이다.</p> <p>원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교육받았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Universidad de Buenos Aires)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으나 1984년 처음 사진예술에 입문한 후, 매력을 느끼고 사진가이자 큐레이터, 아트딜러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p> <p>사진예술분야 전문가로서 미국 보스턴 대학의 사진자료센터, 구겐하임 어워드, 암스테르담 FOAM 사진미술관 등의 다양한 국제 기관들의 자문위원으로 초대되었고, 2000년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 문화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2001년에는 아르헨티나 연방정부 외교·종교부에서 사진분야의 자문을 담당한 바 있다. 2004년, 2006년, 2008년에는 파리에서 격년제로 열리는 "Mois Photo"의 국제자문위원회의 멤버로 활동하였다.</p> <p>큐레이터로서 Harrington은 아르헨티나 뿐 아니라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멕시코, 프랑스, 스페인, 모로코, 시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전시를 기획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 내 대규모 사진비엔날레인 '빛의 축제'를 26년 동안 이끌어 오며, 국내외 사진작가들과 큐레이터들의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사진작가 '이명호'에게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2014년 빛의 축제에 초대하였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아직 아르헨티나에 소개 되지 않은 한국의 사진작가들 및 아시아 권역의 사진작가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p> <p>기획 뿐 아니라 직접 사진작가로도 활동하는 Harrington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여러 전시기관-</p>		

MAMBA, 레콜레타 문화센터, 산마르틴 문화센터, 얼음 궁전 등-과 칠레, 브라질, 멕시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등 해외 21곳에서 전시를 가졌다. Harrington의 작업은 아르헨티나 국립미술관, 파리 국립도서관, 휴스턴 미술관, 벨기에 사진미술관에 영구소장되어 있으며, 미국, 유럽, 라틴아메리카 등지의 개인 소장가들이 소장 중이다. (\* Eida Harrington의 개인 홈페이지: [www.eldaharrington.com.ar](http://www.eldaharrington.com.ar))

**\* 빛의 축제 (Festival de la Luz)**

‘빛의 축제’는 1989년, 사진 발명 150주년을 기념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처음 “Encuentros Abiertos de Fotografia”란 이름으로 개최된 이래 미국, 호주, 포르투갈, 러시아, 캐나다, 그리스, 영국, 덴마크, 프랑스 그리고 한국의 대구 사진 비엔날레 등 5개 대륙의 27개의 사진 관련 축제들과 연계하여 지속해서 국제협력 및 교류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2014년 8월 개최 25주년 기념 축제가 개최되었고, 2016년 8월 “Traces of Unreality”란 주제로 26번째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며,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 \* 관련 웹페이지: <http://www.encuentrosabiertos.com.ar> )

**\*\* 아르헨티나 사진학교(Escuela Argentina de Fotografia)**

아르헨티나 내 Buenos Aires, Pilar, Salta, Ushuaia 총 4곳에 본부를 두고 있다.

관련 웹페이지: [www.eaf.com.ar](http://www.eaf.com.ar)

\* 태그: #Eida Harrington #빛의 축제 #Encuentros Abiertos de Fotografia #사진축제 #비엔날레 #아르헨티나사진학교 #사진예술 #시각예술 #큐레이터 #문화부 #연방외교부 #자문위원 #국제협력 #이명호 #네트워킹

<b>인물명</b>	<b>Teresa Riccardi</b>	<b>소속</b>	부에노스아이레스 현대미술관 (MACBA)
<b>장르</b>	<b>시각예술 기획</b>	<b>이메일</b>	teresa.riccardi@macba.com.ar



테레사 리카르디(Teresa Riccardi)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현대미술관 (MACBA)의 미술관 운영 총괄( Directora Gestión Museística) 및 책임 큐레이터이다.

미술사가이자, 큐레이터, ‘Blanco sobre Blanco’ 매거진의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UBA)의 부교수이자 철학박사과정 중에 있다.

2004년에서 2007년에, 리카르디는 FONCYT-ANPYCT에 의해 기금이 제공된 프로젝트 PICT 11294 를 위한 첫번째 펠로우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Santiago Garcia Navarro, Santiago Garcia Aramburu, Valeria Gonzales 등의 동료 큐레이터들과 함께 라틴 아메리카 내 독립적인 예술그룹들과 공간들에 관한 책인 ‘El pez, la bicicleta y la maquina de escribir(The fish, the bicycle, and the type writer’ 를 출판하였다.

리카르디의 대표적 큐레토리얼 프로젝트로는GeometríasHeterodoxas, Mamba, Bs. As. (2003); Entretextos, EspacioEclético, Bs, As. (2003); Duplus, EIEI, Valparaíso (2004); Manipulaciónasistida del NBP, DNM ExBibliotecaNacional, Bs. As. (2006); Catch 22 goes on-line, Ingenuity Festival, Cleveland (2006); Area de Servicios, CCR, Bs.As. (2007); and AAS:

Agencia de Asuntos (Sub)tropicales, EAC, Montevideo (2012) 등이 있다.

※ 태그: #부에노스아이레스 #현대미술관 #MACBA #큐레이터 #Teresa Riccardi

<b>인물명</b>	<b>Alejandro Cacetta</b>	<b>소속</b>	<b>INCAA</b>
<b>장르</b>	<b>영화</b>	<b>이메일</b>	<b>presidencia@incaa.gov.ar</b>



알레한드로 카세타(Alejandro Cacetta)는 2015년 12월 연방 문화부 산하 기관인 국립영화영상예술위원회(Instituto Nacional de Cine y Artes Audio-visuales; INCAA)의 새 위원장(president)로 임명된 인물이다.

INCAA를 통해 영상산업의 강화를 가져올 새 위원장을 뽑기 위해서 최초로 영화계 및 영상예술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 오픈콜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동 분야 종사자들의 투표를 통해 강력한 지지를 얻은 카세타가 선발되었다. 카세타는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영화 프로듀서이다. 2001년에서 2006년까지 TV와 영화 프로덕션 회사인 Pol-ka에서 파이낸스와 경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매니저로 근무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Patagonik Film Group에서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Un novio para mi mujer (2008), Leonera (2008), Elefante blanco (2012), Corazón de león (2013) y Vóley (2014) 등 40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참여하였다.

또한, 최근 한국 영화산업과 작품에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어, 추후 한국영화계와의 협력도 기대해 볼 만하다.

※ 태그: Alejandro Cacetta, INCAA, 알레한드로 카세타, 아르헨티나 국립영화영상예술위원회

<b>인물명</b>	<b>Laeticia Mello</b>	<b>소속</b>	<b>독립기획자</b>
<b>장르</b>	<b>시각예술; 기획/비평</b>	<b>이메일</b>	<b>letice.mello@gmail.com</b>

Laeticia Mello (1983년생)는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 큐레이터이자 비평가, 리서처이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현대미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아트마켓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칠레의 월간미술지인 Arte al Límite에 글을 기고하고 있고, AAMNBA(Asociación Amigos del Museo Nacional de Bellas Artes)에 출강 중이다.

큐레이터로서 기획한 전시로는 2015년 3월에서 6월까지, MALBA에서 선보인 VI Sesión en el Parlamento, Final del Juego, 프로아 파운데이션에서 진행된 Espacio Contemporáneo 프로젝트,




MNBA Neuquén에서 열린 Una línea continua, Open Studio #9 BSM Art Building 등이 있다.

또한, Fundación Itaú Cultural Argentina에서 수여하는 Young Curators Award를 수상한 바 있다.

※ 태그: Laeticia Mello, curator, independent curator, arte al limite, AAMNBA, 큐레이터, 독립기획자, 비평가, 리서처

<b>인물명</b>	<b>Andrés Duprat</b>	<b>소속</b>	아르헨티나 국립미술관(MNBA)
<b>장르</b>	<b>시각예술</b>	<b>연락처</b>	-



건축가이자 큐레이터, 시나리오 작가 등으로 활동해 온 Andrés Duprat(1964년생, 아르헨티나 La Plata 지역에서 태어남)은 2015년 12월 새롭게 아르헨티나 국립미술관 (Museo Nacional de Bellas Artes: MNBA)의 관장으로 취임한 인물이다.

1991년에서 2002년 그는 바이아 블랑카 미술관(Museo de Bellas Artes de Bahía Blanca)의 관장으로 일하며, 그 지역에 새로운 현대미술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힘쓴 바 있다.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위치한 “Espacio Fundación Telefónica”의 현대미술센터와 문화 부문 전반의 책임을 맡았다. 2005년부터 국립미술관의 신임장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연방정부 문화부의 시각예술 부문의 디렉터로 국가 시각예술 분야 정책 방향 등을 이끌어 왔다. 또한, 그는 아르헨티나, 프랑스, 쿠바, 미국, 칠레, 멕시코 및 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100여개의 전시를 기획한 바 있다.

※ 태그: Andrés Duprat, Museo Nacional de Bellas Artes, MNBA, 아르헨티나, 국립미술관, 관장, 큐레이터, 건축가, 시각예술

<b>인물명</b>	<b>Gaudêncio Fidelis</b>	<b>소속</b>	<b>메르코술 비엔날레</b>
<b>장르</b>	<b>시각예술/ 기획</b>	<b>이메일</b>	gaudencio.fidelis@bienalmercosul.art.br

Gaudêncio Fidelis (1965년생)은 브라질 출신으로, 브라질 근현대미술 전문의 미술사가이자, 큐레이터이다. 뉴욕대학교(NYU)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뉴욕주립대학(SUNY)에서 논문 <The Reception and Legibility of Brazilian Contemporary Art in the United States (1995 - 2005)>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Fidelis는 1992년 Museum of Contemporary Art of Rio Grande do Sul를 설립하였고, 초대 관장을



역임하였다. 브라질 국내외 신문매체나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전시의 도록에 글을 써오고 있다.

지금까지 Iberê Camargo Foundation, Museum of Contemporary Art of Rio Grande do Sul, Santander Cultural, Oi Futuro, Rio Grande do Sul Museum of Art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50여 개가 넘는 전시를 기획하였다. 2015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에서 제 10회 메르코술 비엔날레 <Messages from a New America>의 총감독(Chief-curator)을 역임하였다.

※ 태그: Gaudêncio Fidelis, 메르코술 비엔날레, 큐레이터, 기획자, 미술사가,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

인물명	변겨레 (Antonio Kyore Byun)	소속	아르헨티나 연방문화부
장르	정부기관	이메일	kyorebeun@gmail.com



변겨레(Antonio Kyore Byun) 씨는 2016년, 한인 2세로는 처음으로 29세의 나이에 아르헨티나 연방정부 문화부의 이반 페트렐라(Ivan Petrella) 차관을 돕는 문화부 대외관계 협력부\* 차관보(Subsecretario de Cooperación Federal en el Ministerio de Cultura)로 발탁되었다. 문화부 대외관계 협력부는 주지사, 장관, 시장, 국회의원 등 주정부 기관과 연방 문화부의 관계를 관리하고, 아르헨티나 내 다양한 문화적 현상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하는 팀이다.

변 씨는 산타페주 로사리오 주에서 태어난 변씨는 부에노스아이레스대 법대에 입학했으며, 2012년 독일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다녀왔고, 이듬해 졸업과 함께 국제법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009년부터 대학졸업 때까지 대학에서 공화당(PRO)에 관여했고, 2012년에는 PRO 청년부 문화부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변씨는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 한인사회 주요 인사와 현지 문화계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변씨는 페트렐라가 시의원으로서 재직하던 시절 그의 보좌관으로 일했으며, 페트렐라가 문화부 차관에 발탁되면서 함께 정부에 입성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뉴스 포털 사이트에서 칼럼니스트로 활약하기도 한 변 씨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아르헨티나 지회에서 차세대로 활동했고, 한인상인연합회 이사, 한인전문인협회 총무, 한인문인협회 회원 등에서 활동했다.

변 씨는 아르헨티나 이민역사상 처음으로 정부 고위직 인사에 올라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한인 2세인 변 씨가 앞으로 한인 사회와 아르헨티나 정부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변겨레 씨가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인포배(Infobae) 페이지

<http://opinion.infobae.com/kyore-beun/>

[기타]

제안아이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미술관 지형도를 통해 본 아르헨티나 현대미술”	계재희망일	2015년 11월 초
기획의도	<p>중남미 현대미술은 현재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뉴욕현대미술관 (MoMA)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컬렉션을 강화하고 있으며, 구겐하임미술관 역시 UBS MAP Global Art Initiative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집중한 바 있다. 그뿐 아니라 런던의 Tate 및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은 현대미술 부서에 독립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전문 큐레이터를 뽑는 등 세계 미술관들의 중남미 지역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지의 미술관들은 이러한 국제적 관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안고, 중남미 현대미술이 비교적 많이 소개된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 비해, 아직 우리나라의 시각예술계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남미의 문화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미술관들과 그들의 최근 활동 및 핵심 인물들을 소개함으로써, 아르헨티나 현대미술계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p>		
아이템 개요	<p>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주요 미술관 리서치 및 방문, 관계자 미팅을 통한 각 미술관 소개 (5곳)</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lba (Museo de Arte Moderno de Buenos Aires)</li> <li>- Macba (Museo de Arte Contemporaneo de Buenos Aires)</li> <li>- Mamba (Museo de Arte Moderno de Buenos Aires)</li> <li>- Faena Arts Center</li> <li>- Fundacion Proa</li> </ul> <p>각 기관의 특징 및 최근 전시 동향, 미술관 정책 등을 살펴보고, 그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르헨티나 현대미술의 동향을 짚어본다.</p>		